



04 • 권두언

생명의 뿌리 인삼을 세계로, 미래로 | 권오룡

06 • 특집 |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생명의 뿌리를 세계로

미리 가본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 김종기
인삼 세계화전략, 홍보마케팅에 주력하라 | 조상원
인삼산업의 미래전망 | 최재을



18 • 충남논단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 유학열

26 • 열린마당

바보기업의 성공전략 | 김성훈

31 • 충남 마을 기행

홍성 거북이마을 - 솔바람길 따라 떠나는
느림보 여행 | 정봉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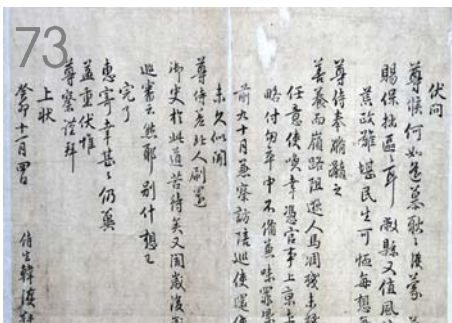


37 • 해외리포트

동아시아 전략적 거점 답사 | 오용준
호주 생태관광 체험기 | 정옥식

56 • 오피니언

금산을 세계적인 인삼 메카로 키우기 위한
체질개선 | 이숙경
관광, 문화·사람·자연에 흠뻑 젖다 | 박근수
고려인삼의 진면목을 팔자 | 허광학
역세계 운(運) 좋은 여행 | 권오덕



64 • 충남 소식

66 • 연구원 소식

73 • 충남 문화유산

석봉 한호 간찰

생명의 뿌리 인삼을 세계로, 미래로

권오룡 |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장



한 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가 삼계탕이다. 토종닭에 찹쌀, 인삼, 대추 등을 넣어 푹 끓여낸 삼계탕은 기운이 쇠하고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에 자주 찾게 되는 대한민국 대표 보양식이다. 그런데 삼계탕에 인삼이 들어있지 않다면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방의 감초’라는 말처럼 삼계탕에 인삼이 빠진다면 그저 그런 탕밖에 되지 않는다. 인삼은 피로회복과 고혈압, 빈혈, 당뇨에 좋다. 여름철의 식욕감퇴와 구토, 설사에 효과가 있다. 또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무더위로 인해 생기는 짜증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인삼은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음식이다. ‘건강’ 하면 ‘인삼’을 떠올리듯, 인삼을 소재로 한 지구촌 최고의 건강이벤트가 금년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충남 금산에서 열린다. 바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다.

조물주가 인간에게 내려준 신비의 명약인 인삼, 특히 고려인삼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인삼은 1500년 전 고대 중국의 문헌에 회자되면서 당시 사라센제국 등 중동지방까지 교역되었다. 그리고 이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조차 알아주는 건강식품이 되었다.

특히, 국내 수삼 거래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인삼시장이 있는 충남 금산은 고려인삼의 종주지이며, 인삼·약초의 집산지이다. 또한 전국 3대 약령시장 중 하나이다. 생산을 비롯해 가공, 유통 등 인삼클러스터가 형성돼 있고, 현재 금산군민 대부분이 인삼 관련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 30년 전통의 금산인삼축제는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고 있으며, 지난 2006년에 치러낸 금산인삼엑스포는 금산 고려인삼의 위상 제고와 인삼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인삼의 생산량 증가와 주산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인삼 가격의 하락과 인삼시장의 개방에 따른 중국인삼의 저가 공세로 인한 국제 경쟁력 약화, 그리고 불안정한 시



장가적으로 상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는 고려인삼의 과학적 효능을 부각시키고, 인삼 소비시장 확대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이어 올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건강과 웰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의 확산과 고려인삼의 탁월한 효능에 대한 과학 학술적 기반 구축의 당위성 등에 힘입어 인삼재배 농가와 생산 및 유통업계의 건전한 육성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와 금산군이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 인삼엑스포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지역연고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135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게 된다.

금년 행사는 인삼을 국가 수출 주도품목으로 육성하고 고려인삼의 명성과 인삼중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2006년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과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국내 인삼산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품격 높은 산업박람회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치러낼 계획이다.

인삼엑스포의 주 행사장은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공간으로 기존 시설과 장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려인삼의 국제교역 장터를 마련하고 지역 특색에 바탕을 둔 친환경적 공간으로 조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전시 체험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전시시설은 인삼산업관의 면적을 확장해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체의 인삼 제품을 전시하여 국제 교역 확대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획 설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생산국에서 생산된 각종 인삼제품을 전시 및 비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인삼의 맛과 향을 만끽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다채로운 공연이벤트를 연출하여 세계인과 함께 즐기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이 오감만족과 감동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추진에 구슬땀을 쏟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본인은 조직위 전 가족과 충남도, 금산군민을 비롯한 200만 충남도민과 함께 금년 가을에 개최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하여 고려인삼의 성지인 금산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금산에서 싹을 틔운 생명의 뿌리가 세계와 미래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2회를 맞이하는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32일간 금산군 신대리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인삼을 통한 금산지역의 경제적 도약과 건강 생명도시로서 금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엑스포이다. 자연의 과학이 만든 생명밸런스라는 부제 아래 인삼의 생명산업화의 가능성을 보게 될 행사 속으로 미리 떠나보자.

미리 가본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

김종기 |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홍보팀장

자연의 과학이 만든 생명밸런스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탄생은 금산이 고려인삼의 종주지라는 것과 전국 인삼 유통량의 80%가 거래되는 인삼 유통의 중심지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2006년 엑스포는 종주지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인삼을 통해 금산을 인삼도시로 브랜드화했다. 2천2백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3천억 원의 직접매출을 발생시켰으며, 19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06년의 성과를 이점으로 2011년 엑스포에서는 인삼을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과학적인 효능과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삼의 생명산업화로의 메시지 확장을 통해 아시아 대표 건강 생명도시라는 금산의 새로운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려 인삼의 우수성

인삼은 먼 옛날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여러 효능이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신비하고도 영험한 약초이다. 고려인삼은 인삼 중에서도 1,500년 전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세계 최고의 약용식물이다.

또한 인삼에는 30여종 이상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어 간 기능 회복과 항암효과, 그리고 항스트레스, 당뇨병, 노화방지, 정력증진과 혈압조절 기능이 뛰어나 생명 연장의 지혜와 생명 소통의 철학을 담고 있는 인류 최고의 영약이다.

금산, 고려인삼의 종주지



인삼은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생명을 품어주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사람의 정성이 함께 해야 비로소 인삼이 자라나는 이치라고나 할까.

금산은 맑은 공기, 맑은 물, 아름다운 산과 함께 청명 온화한 기후, 뚜렷한 사계절, 주야간의 온도차, 그리고 토양 등 고려인삼의 생육에 최적의 장소이며, 금산에서 생산된 인삼의 사포닌 함량, 약리적 효능,

그리고 조직의 치밀도 등이 우수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충청남도 금산은 3대 약령시장의 한곳으로 유서 깊은 향토문화의 고장이다. 또한, 고려인삼의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기반이 갖추어진 국내 최대의 집산지인 고려인삼을 더욱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곳이다.

금산과 인삼을 상징화하는 회장 조성

행사를 약 5개월 앞둔 엑스포장은 준비가 한창이다. 금산의 건강 생명도시 이미지를 상징화하는 두 축-생명산업화의 축과 과학적인 자연의 축-을 중심으로 기능과 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과학적인 공간이 설계된다. 또한 엑스포장 내에는 인삼의 재배요건인 빛, 물, 바람 그리고 땅을 형상화한 공간연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생명에너지가 살아 숨 쉬는 엑스포

엑스포장은 크게 '환영의 장', '생명 에너지의 장', '산업 교류의 장', '체험의 장', '소통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관람객의 엑스포장 방문을 환영하는 '환영의 장'에는 입구게이트 및 중앙광장 등의 입장시설, 운영시설과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생명 에너지의 장'에서는 미래의 생명에너지가 되는 인삼을 보여주며, 거대한 인삼밭을 형상화한 상징 모뉴먼트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려인삼관은 인삼의 역사에서부터 재배, 효능, 활용에 이르기까지 고려인삼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돕는 공간으로, 엑스포 주제영상관은 금

산 최초 Full HD 디지털 4D입체영상관으로, 4D효과와 7.1채널 입체음향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신비한 인삼'에 대한 스토리 전개의 극적효과를 배가시킬 것이다. 또한 이곳은 행사종료 이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상설영상관으로 활용될 것이다.

엑스포의 주제관인 생명에너지관에서는 인삼의 생명산업화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간 스토리텔링으로 세계인의 생활 속 인삼체험기를 인삼 테라피, 인삼 에스테틱, 인삼 푸드를 통해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강미소관(인삼생활관)이 조성된다.

'산업 교류의 장'의 생명산업교류관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통해 인삼이 산업에너지가 되는 공간으로, 국내외 인삼 관련 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창출하며, 관람에 지친 관람객의 휴식을 돕는 야외생태정원과도 연계된다.

'체험의 장'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100% 체험을 통해 인삼을 이해하는 장으로, 인체에 미치는 인삼의 효능을 5단계 미션형 놀이로 체험하는 인체탐험관, 가장 오랜 약용 역사를 지닌 인삼을 한방으로 체험하는 금산명의관, 매일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주 무대로 조성된다.

마지막 '소통의 장'에서는 오감(시각, 후각, 청각, 미각, 촉각)으로 인삼을 체험하는 오감체험장, 즐거움과 휴식이 있는 인삼미로정원과 야외분재전시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서는 세계 저명한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고려인삼의 효능 및 인삼 산업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국제인삼심포지움과 각종 국제인삼학술회의, 그리고 상담의 기회도 가질 수 있는 국제 인삼 교역 상담회도 함께 개최된다. 그리고 각종 이벤트와 문화 공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져, 매일 인삼의 모든 것을 만나 볼 수 있는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놓치면 후회하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킬러 콘텐츠

하나, 금산과 인삼을 상징화하는 상징 모뉴먼트

인삼밭의 해가림막의 과학을 재현한 인삼밭 모뉴먼트는 엑스포장 전체 공간에 설치되어 금산의 건강 생명도시 이미지를 상징화하고 동시에 엑스포장 공간 자체가 하나의 야외전시물로 기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1000년 고려인삼 연출(생명에너지관)

부산 원광사에서 발견된 1000년 전의 고려인삼 뿌리를 통해, 인삼이 지닌 역사와 문화를 상징적으로 연출한다.

셋, 2020 미래 인삼 팩토리(생명에너지관)

1000년 인삼의 생명에너지를 추출하는 2020년의 미래 인삼 공장을 연출하여 과학화, 산업화된 상상 속 미래 인삼의 모습을 소개한다.

넷, 초대형 인삼 씨앗(건강미소관)

관람객들은 지름 5m의 초대형 인삼 씨앗에서 2011개의 인삼 뿌리가 만들어 낸 인삼 훈증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다섯, 대형 인체모형 체험관(인체탐험관)

미래 인삼소비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의 인체장기를 대형 모형화한 초대형 체험공간으로, 입-위-대장-심장-항문으로 이어지는 5단계 미션형 놀이를 통해 인삼이 우리 몸에 미치는 효능을 직접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여섯, 건강 생명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행사장

벚단, 흙, 돌 등 자연 속의 자재를 친환경 공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전시관을 조성한다.

건강과 생명, 산업과 과학, 미래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32일간의 인삼 산업화 및 세계화의 장이 될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금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웃음과 건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인삼 세계화전략, 홍보마케팅에 주력하라

조상원 | (재)금산국제인삼엑스포연구소 전략기획실장

세계는 지금 인삼 전쟁중

1500년이라고 자랑하는 우리의 인삼관련산업이 중요한 귀로에 서 있다고들 한다. 한편에서는 생산채굴량 조절에 대한 요구가, 다른 한편에서는 물량부족으로 인한 높은 가격에 대한 불만, 또 어떤 이는 진사나(스위스 파마톤사 제품)와 같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는 제품군의 부족을 말한다.

마치 프로야구팀의 스카우터와 감독, 경영진이 매년 시즌 개막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고민과 너무도 흡사한 듯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인삼산업을 살펴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절대강자 정관장과 강력한 생산자 단체인 11개 지역인삼조합과 한삼인, 후발대기업,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고민하는 지역영세기업, 기업형이 아닌 가내수공업형태의 즉석가공업체 등 규모도 목표도 전혀 다르지만 그들만의 승리방정식을 위한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1996년 인삼전매제를 폐지한 이후 국내 인삼시장과 관련하여 가장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하고 최고의 인지도와 절실한 산업구조의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시장차별과 가격경쟁, 비시장적 선점효과 등에 의한 폐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분히 국내시장의 좁은 틀과 정상적 완전거래시장의 일반조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모두가 경쟁자이고 모두가 동지인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엑기스, 파우치, 정과, 절편, 인삼차 등의 산업 총부가가치가 약 8,000억원 정도의 산업규모시장이 아니라, '진사나'라고 하는 단일제품으로 1조원이상의 매출을 이루는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자.

인삼이 세계인의 귀에, 입에, 눈으로 전달된 역사를 되짚어보면 그리 오랜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16세기 경으로 추정할 수 있을 정도다. 동양에서 진시황이 불로초라고 명명하고 찾기를 명했다는 신비의 약초 중 하나인 인삼을 지목한 것이 기원전이고 세계최대시장인 중국을 상대로 인삼무역이 성행했다는 기록이 7세기이고 보면 서양에서 고려인삼을 인식한 것은 참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태양왕이라 불리운 루이 14세의 집정시기인 1600년대 후반이나 되어 동양의 보물이라는 형용사로 등장하는 인삼. 그저 한약재로만 인식되어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이후 인삼을 즐겼다는 유명인사는 종종 뉴스거리가 되어 회자되곤 한다. 그들의 면면을 보면 교황 바

오로 2세, 미테랑 프랑스대통령, 일본황실, 스콜피온스, 나오미 캠벨, 히딩크 등과 같이 세계적인 유명인사들이다. 거기다 요즘은 천연물의 향산화와 주름제거, 미백 등의 효능을 활용한 한방화장품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설화수나 수려한 등의 국내 화장품이 할리우드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늦기는 하였으나 세계적 명사의 식탁과 화장대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인삼제품이 세계시장을 노리고 있다. 과연 한국의 고려인삼이 세계 천연물 활용 제품시장의 맹주로 떠오르기 위해서 걸림돌은 무엇이며, 어느 측면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필요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자.

1990년대 중반까지 세계 인삼시장에서 우리의 인삼 즉 고려인삼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금액기준으로 최고 38%(1995년)까지 차지했다. 물량기준으로는 20%를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그 효능과 함량의 우수성, 구전(口傳)으로 인한 효과 등에 힘입어 고가의 가격이 형성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인삼브랜드가 되었다. 세계인삼 및 관련제품의 물동량이 가장 많고, 가격형성 가능마저 구축하고 있는 홍콩시장을 기준으로 한국산인삼(고려인삼)은 이미 삼척동자도 알만한 브랜드와 이미지를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세계인삼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한다. 물량규모 46%이상의 최대시장을 형성하던 중국삼이 미국 등 북미삼(화기삼)에게 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 시기 세계인삼시장은 급속한 성장을 시작하여 1998년 대비 2001년의 시장규모는 200%이상 성장을 주도한 것은 한국과 중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이후 세계시장은 미국삼이 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고려인삼과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해져 북미산과 중국삼이 전체시장의 96%이상을 차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신의 선물’이라 일컬어지며 중국의 유명 한약서, 약초서, 의약서에서도 인정하고, 유구한 우리내 역사와 함께한 고려인삼의 지위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 과연 그 해답은 없는 것인가.

과연, 1.4%(2008년 기준)의 시장 점유율 수준에서 ‘승리를 위한 새판짜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또 그 새판짜기의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내 인삼관련산업에 체화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승리의 방정식, 이기는 게임을 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 했다. 인삼이란 것이 있지도 않았던, 별 관심도 없었던 지역에서 불과 30여년의 재배역사로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긴 것이다. 그것도 세계시장에서 한국삼(고려인삼)은 재기불능상태로 강제는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물량과 가격이라는 무기와 더불어 주요 수요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홍보가 그것이다.

우선, 미국과 캐나다가 세계인삼시장의 지배자적 지위를 호령하는 이유가 생산과 재배와 관련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기는 방법을 몸에 익혔다면 우리 인삼산업은 과연 무엇을 통해 승리방정식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들이 고려인삼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선택한 무기는 높은 가격과 연작장애(連作障礙)였다. 이 시장분석을 통해 잠재시장으로 주목하던 천연물의 기능성에 대한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선택한 대안이 대규모생산재배지 확보와 과학적 분석서비스를 통한 기득권자의 약점을 노린 홍보마케팅전략인 것이다.

소비시장의 세분화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인삼시장의 약 75%이상이 거래되는 홍콩은 원삼류시장이기 때문에 실제소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소비요인은 언제나 가격이 가장 우선한다. 이는 제품화시장과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다시 이러한 트렌드가 전체 소비량을 결정하는 시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고려인삼을 생산하는 국내 농업인들이 미국삼과 중국삼과 동일가격 혹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경쟁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싸움판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협동 마케팅 펼쳐야

그렇다면 고려인삼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판은 어디일까? 어떤 무기로 싸움판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까?

우선 한가지는 세계화다. 세계화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여기서 의미하는 세계화는 현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하자. 20년 전 어느 대기업의 총수가 해외에서 만들어 해외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을 세계화라 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인삼의 세계화, 현지화를 적용시켜보자. 원삼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수출 인삼제품의 종류와 제형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선호하는 제품유형과 크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소비용으로 만든 제품에 상표와 문자만을 바꿔 포장하고 선적해 판매하는 형국이다. 식습관이나 생활패턴, 수요하는 주요 용도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이를 통한 국가 또는 시장마다 차별화된 제품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가마다 식품으로 혹은 약품으로 구분되어지는 제약조건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원삼류시장이 아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품시장으로의 접근이라고 한다면, 홍콩과 대만의 생활습관과 패턴, 소비자의 성향, 1회소비량 등의 간단한 분석결과가 반영된 제품의 출시가 필요하다. 만들었으니 써보고 먹어보라는 공급자적 시각이 아닌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탐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현지화라고 하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인삼을 주요작물로, 중심산업으로 선정하고 특화한 지자체의 노력이 덧붙여져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이겠으나 대표공동브랜드화를 통한 협동마케팅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95년까지 정관장으로 대변되던 고려인삼은 이후 인삼산업법에 의해 민간사업자에게 비즈니스영역을 개방하였다. 이후 장마철의 죽순처럼 개업과 창업, 브랜드의 개발 및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도 '똑같은 품목을 생산하는, 그것도 홍삼이라

는 명칭을 다 똑같이 사용하고 디자인이나 홍보에 사용하는 용어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을 판매한다'는 불만을 터트린다. 하물며, 해외소비자들은 어떨까?

기회가 닿아 대만의 인삼시장을 탐방한 일이 있었다. 그때 한국에서 인삼을 수입해 판매하시는 현지분의 생생한 고민거리가 그것이었다. 그러면서 제안을 하는 것이 '고려인삼은 대한민국의 특산품이다. 소비자는 대한민국의 특산품을 구입하는 것이지 개별브랜드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다. 수출품에 대한 휘장만이라도 통일시키고, 지방정부나 연구소 등에서 QC 인증만 찍어 보내기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한, 협동마케팅은 통해 세계시장을 위한 홍보주체의 대표성 문제와 각종 이벤트, 전시판매전, 생산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유통경비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삼의 세계화 전략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무엇일까? 올림픽을 통해 한국야구가 세계최강이라는 쿠바, 미국, 일본 등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수상했던 사례에서 찾아보자. 철저한 상대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화된 선수들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자부심이라는 부가가치를 얻어 주었을 때, 선수들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환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삼산업과 고려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조건 들고 나가서 팔겠다는 것보다는 해외시장이 원하는 것에 대해 정확하고 바른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즉 홍보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생산과 연구, 교육과 이벤트 등의 지속적인 지원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시작해 지역의 영세규모의 작은 기업체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발굴하고 감동시킨다. 저마다 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고 확대해 나간다. 마치 국내프로야구팀마다 색깔이 다르듯이. 그러나 국가를 대표하는 마크를 달고 시합을 나갈 때에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타수와 투수, 최적화된 컨디션을 만들고 나가서 싸운다. 우리 인삼관련 산업체는 국내에서는 각자 소속된 기업과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한다. 그런데 시장이 달라지면 분명 싸우는 각오도 목표도 일굴도 눈빛도 달라져야 한다.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공동의 노력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제품을 준비하고, 현지화를 통해 최적화된 상품을 들고 마케팅에 임하는 인삼세계화전략의 수립, 그 기본 바탕에 홍보와 마케팅의 컨셉을 목표로 재구성된 든든한 지원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을 기대해 본다.

인삼산업의 미래전망

최재을 | 충남인삼특화작목산학연합협력단장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약용작물로 효능이 우수하여 오래전부터 동양의 중요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우수성 때문에 고려시대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무역품 중의 하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인공재배 및 홍삼가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17세기 후반에는 조선과 일본, 중국을 잇는 동아시아 교역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에 따라 인삼 교역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컸다.

조선 왕족실록에는 인삼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으며, 기록 내용을 보면 사신과 공신 등의 선물, 조공, 교역, 왕실의 보약 등으로 사용하는 귀중품이었다.

이러한 고려인삼의 역사적 배경과 효능의 우수성 때문에 오랫동안 홍콩시장 등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게 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품의 하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광도 미국삼이 홍콩과 중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의 백삼은 홍콩과 중국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에는 1위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다. 홍콩과 중국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인삼의 수출은 일본, 베트남, 미국, 유럽, 중동, 남아메리카 등으로 확대되어 시장의 다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삼산업은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홍콩, 미국 캐나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내 인삼산업의 여건도 점점 저하되고 있으므로 인삼산업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고려인삼 약효의 우수성과 품질은 많은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정재배 등에 의한 우량한 원료삼의 생산, 직파재배 및 기계화에 의한 원료삼의 원가 절감, 기능성 물질의 표준화된 제품생산, 마케팅 전략 등이 해결된다면 고려인삼의 옛 명예를 되찾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실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재 상황을 분석하여 타개방법과 인삼산업의 미래를 전망을 예측하여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 인삼산업의 현황

인삼 재배면적은 1970년 3천ha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 1만ha 이상으로 증가하여 1992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와 경쟁국들의 도전 등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면서 1996년에는 8.9천ha까지 감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배면적은 매년 서서히 증가하여 2006년 16.4천ha까지 확대되었으며, 2009년에는 19.7천ha까지 증가하였다.

수삼 생산량은 1970년 2천 톤 미만이었으나 1985년 재배면적의 급증과 함께 1만 톤을 초과하였다. 2008년에는 재배면적과 단당수량의 증가로 24.6천 톤, 2009년 27.5천 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출액은 1980년 66백만 달러에서 1990년 1억 65백만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2002년에는 55백만 달러로 급감하였다. 2004년에는 89백만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드디어 2009년에 1억불을 달성하였다.

〈표 1〉 인삼산업의 연차별 변화

구 분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1	2002	2004	2006	2008	2009
재배면적 (천ha)	12.2	11.4	10.1	8.9	10.4	12.5	13.0	12.9	13.1	16.4	19.4	19.7
생산량 (천톤)	13.9	13.5	14.3	10.2	11.5	13.7	13.2	16.7	14.7	19.9	24.6	27.5
수출액 (백만달러)	165	144	114	113	82	79	75	55	89	89	97	110

인삼관련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 1984년 백삼, 1996년 홍삼 전매제의 폐지이다. 그러나 전매사업의 폐지 초기에는 군소업체의 난립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과다경쟁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였다. 즉 대외적으로는 해외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해외 바이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가져왔고, 종래 인삼공사 중심의 고급제품으로서의 국내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중저품의 군소업체가 그 위치를 정착시키지 못하여 대부분의 업체가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은 농촌 노임의 상승을 초래하였고, 인삼 집산지에서는 초작지 부족으로 출장 재배에 따른 경영비 증가는 인삼노임상승과 함께 경영의 수익성을 감소시켰으며, 국제적으로는 고려인삼의 가격 상승과 판매 전략의 부진으로 경쟁력을 상실함에 따라 국제시장 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인삼종주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백삼과 홍삼의 전매제 폐지를 갈망하였던 인삼산업 관련 중소기업체는 자본과 기술이 열약하고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안정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최근에 인삼농협 및 중소기업 등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인삼산업의 유통질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나 그 비율은 인삼공사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이라는 명품 브랜드와 품질 고급화로 국내외 인삼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삼산업의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인삼생산 분야에서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것과 청정인삼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인삼재배의 기계화와 직파재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배여건인 차광시설내에서의 기계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기계화는 차광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규격화가 되어야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기후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다르므로 이들의 차광구조를 모방할 수는 없지만 시설의 규격은 유사하게 하고 누수를 막는 차광망 등을 개발한다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직파재배는 기계화의 촉진과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직파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형태에 따른 등급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 형태는 인삼의 효능과 무관하므로 조속히 해결되도록 관련기관에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인삼 즉 무농약재배 인삼의 생산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차광시설에서 누수를 완전히 막고 친환경자재의 개발과 이용이 병행될 때 무농약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농약재배는 국내 소비자에게 안정성 확보와 품질우위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수출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다.

인삼포장에서의 청정재배는 현재의 재배기술로는 많은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시설재배라고 생각한다. 시설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인삼재배용 상토의 개발, 온도 및 기온 제어 기술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미 시설재배용 상토 및 용기, 하우스 시설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성공단계이고 농가 보급을 위한 최종점검 단계에 있으므로 인삼의 식물공장 또는 도시농업으로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삼제품 분야에서의 경쟁력은 표준화된 기능성 제품 생산이 필수적이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인삼의 효능은 면역증진, 피로회복, 혈소판 응집억제에 의한 혈행개선, 기억력 개선이다. 그러나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의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기능도 다양하다. 2종류의 진세노사이드가 4종류의 기능성을 대표하는 성분은 아니다. 따라서 기능성별로 사포닌의 종류와 함량을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능성 성분의 함량 범위가 넓어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보고된 인삼의 효능은 간장보호 작용, 중금속 제독작용, 당뇨병에 대한 효과, 항암효과, 면역기능의 강화, 노화방지 효과, 비만 및 저체중의 정상화, 알코올의 해독작용 및 숙취예방, 류머티즘 개선, 갱년기 장애와 생식기 계통의 정상화, 아토피 치료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임상 시험과 성분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인삼의 효능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혈당강화와 노화억제라고 생각된다. 인삼의 항당뇨 효과는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미흡하고 항당뇨 활성성분, 약물학적 기전 등

에 대한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고려인삼이 항당뇨 효능입증과 동시에 항당뇨 효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진세노사이드의 비율 및 함량이 결정된다면 국내는 물론, 아시아, 북미 유럽 등으로 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노화억제 효능은 화장품에서 이미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 미백효과와 주름방지 화장품 등이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노화억제효능이 얼굴뿐 아니라 인체의 노화억제에도 효과가 검증되어 진다면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한국과 외국의 선진 국가에서도 소비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인삼산업의 전망

인삼의 재배면적은 인삼가격의 안정과 소득의 증대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현재의 상황이 유지되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인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인삼공사가 2011년 매출액 목표를 2010년 8,400억 원의 35.5%를 증가시킨 1조원으로 정하였다. 해외 매출액도 2010년 7,300만 달러에서 금년에는 1억 5,000만 달러로 크게 늘려 잡고 있다. 이러한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 미국에 11개의 해외지사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된다면 인삼산업의 전망은 당분간 밝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삼산업의 꾸준한 발전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재배 및 가공기술의 개발과 유통질서의 확립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자, 연구자, 국가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인삼발전을 위해 합심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번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하여 인삼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충남도민은 물론 인삼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유학열 |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장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급변하고 있는 농촌지역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 가운데 하나는 도시민의 농촌¹⁾으로 이주 즉,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10여 년 간의 귀농·귀촌 변화를 살펴보면 1997년 IMF경제위기 이후부터 2000년까지는 생계를 위한 전농업형태의 귀농이 많았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30~40대를 중심으로 한 겸업농업형 및 생태지향형 귀농이 주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최근까지는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 변화와 베이붐세대²⁾의 은퇴 후 농촌(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회귀현상도 편승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과 나이, 경제력 등에 관계없이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찾아 생계 수단과 주거 공간을 농촌으로 옮기려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이러한 농촌지역으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농촌지역의 과소화 해소 및 도시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 등의 활용을 통해 농촌경제의 다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해 오는 귀농·귀촌 대해 기존의 지원책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느냐하는 지적이 적지 않다. 즉, 귀농·귀촌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농촌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 정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일정 기준에 의해 유형화하여, 유형에 따라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① 충남지역으로의 귀농·귀촌동향분석, ② 충남 귀농·귀촌 행태적 특성, ③ 귀농·귀촌 유형별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상 면(面)지역 이하의 지역으로 설정함.

2) 베이붐세대란 전후(戰後)에 태어난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명이 여기에 해당됨.

II. 연구방법과 분석틀

1. 연구방법

1) 문헌고찰

중앙정부(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귀농·귀촌 대책과 관련된 자료, 귀농·귀촌 및 농촌지역으로의 전입자 관련 통계자료를 고찰했다.

2) 예비설문 조사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문제 진단 및 예비설문 항목 설정하고, 본 설문조사 설계를 위한 사전 예비설문조사 실시했다.

3) 설문조사 및 현지 인터뷰조사

서천군, 홍성군, 금산군, 청양군으로 귀농·귀촌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했다.

4) 통계조사

계룡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30개 면을 대상으로 2009년 1년 간 면별 전입자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2. 분석틀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 형태를 유형화하기 위한 분석 항목으로 귀농·귀촌 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기본 생활권을 설정하였다.

귀농·귀촌유형화를 위한 구분 기준은 이주목적, 거주형태, 가계소득, 영농형태 등을 기초로 하여 필자

〈표 1〉 귀농·귀촌 유형별 구분 기준

구분	전입 귀농형	은퇴 귀농형	농촌 지향형	노후 휴양형	도시 출퇴근형
이주목적	영농	영농 + 전원생활	농촌생활, 전원생활	휴양·요양	전원생활
거주형태	정주	정주	정주	정주	반정주
가계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농업소득 <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비농업소득
영농형태	전업농	겸업농	겸업농	가정재원	가정재원
영농규모	대규모(1ha 이상)	중·소규모(0.5~1ha)	소규모(0.5ha 미만)	-	-
생활권	농촌	농촌	농촌	농촌	농촌+도시

가 조작적으로 설정하였다(표1 참조). 본 연구에서는 귀농·귀촌유형을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Ⅲ. 충남지역 귀농·귀촌 동향 분석

1. 귀농인구(가구)의 변화

농림수산물부 및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귀농인구의 전국적 동향을 살펴보면, 1997년 IMF위기 이후 귀농인구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 감소 추세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1998년~1999년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가구수가 연간 약 4,000~6,000가구로 급증하였으나, 그 후 2005년까지는 연간 약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퇴직 후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어남에 따라 귀농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귀농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대가 36.4%로 가장 많았고, 40대도 27.1%를 차지하여, 30대와 40대 합친 비율이 6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을 못하거나 실직한 젊은층이 생계를 위해 귀농한 경우가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60대 이상의 귀농자 비율이 '06년 22.0%, '07년 20.2%, '08년 23.8%로 2006년 이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충남의 경우도 전국적인 경향과 유사하나, 2005년 이후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기준 과거 4년 동안의 귀농가구수가 연평균 71.3세대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4년 동안은 연평균 201.3세대로 약 3배가 늘어났다.

2008년 기준 과거 8년 간 시·군별 귀농가구 추이를 분석해 보면 서천군이 140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주시(116세대), 논산시(106세대) 순으로 귀농가구가 많았다. 한편, 계룡시, 아산시, 예산군 등의 귀농가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귀농·귀촌의 인구학적 특성

1) 조사 대상지역 및 내용

충남 전체 16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⁸⁾를 제외한 15개 시·군별로 2개 면을 표본으로 선정 총 30개 면⁹⁾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본 선정 기준은 본 연구의 성격을 고려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비교적 전형적인 농산어촌의 특징을 가진 지역을 택하였다. 조사기준

연도는 2009년이다.

조사 내용은 2009년 1년 간 면별 전입자 규모, 성별, 연령별 비율, 전출지의 지역분포 등이다.

2) 조사 결과

(1) 면별 전입자 규모

조사 대상지의 전입자 규모를 살펴보면 서산 웅암면이 1,71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당진 정미면 971명, 공주 반포면 871명 순이며, 서천 문산면이 140명으로 가장 적었다. 30개 지역 평균 전입자수는 518명이며 과반수가 300~700명 사이에 있다.

(2) 연령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39세가 18.2%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 17.7%, 20~29세 17.5%, 40~49세 16.7% 순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전입자가 제법 많다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전입자가 많은 지역은 천안 광덕면, 아산 영인면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농촌지역과 홍성군 홍동면으로 귀농·귀촌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3) 전출지 권역별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살펴본 결과, 동일 시·군에서 33.1%, 동일 시·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내에서 15.8%, 타 시·도에서 51.1% 전입해 온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경우 충청남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전입해 왔다.

단, 특이한 점은 금산 복수면, 공주 반포면의 경우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비율이 90% 가까이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 이유는 두 지역 모두 대전시와 인접해 있어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4) 전출지의 시도별 분포 특징

충남 농촌지역(면지역)으로 전입한 자의 바로 전 거주지(전출지)를 시·도별로 살펴본 결과 충남이 48.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가 14.7%로 충남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유입한 지역이다. 그 외 대전 11.0%, 서울 9.5%, 인천 4.5% 순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전입자의 전출지 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천안시 광덕면, 수신면의 경우 인근의 충북으로부터의 전입이 뚜렷이 많았으며, 공주 반포면, 금산 복수면, 금산 군북면의 경우는 대전시로부터의 유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월등히 높았다. 서천 마서면의 경우 전북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타 시·도가

3) 계룡시에는 신도안면, 염사면, 두마면 3개의 면이 있으나, 신도안면의 경우 전주군이 군인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염사면, 두마면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외부 유입인구가 최근 급증한 지역으로 본 연구의 성격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음.

4) 조사대상지역은 광덕면, 수신면, 반포면, 계룡면, 남포면, 청라면, 송악면, 영인면, 부석면, 웅암면, 광석면, 상월면, 군북면, 복수면, 전의면, 전동면, 장암면, 구룡면, 마서면, 문산면, 비봉면, 대치면, 홍동면, 홍북면, 응봉면, 오가면, 소원면, 이원면, 고대면, 정미면

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아산, 서천, 청양, 태안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 이원면의 경우 예부터 인천지역과 연고가 깊은 탓인지 인천지역으로부터의 전입이 22.0%로 경기, 서울보다도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거리적 접근이 어려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1.0% 전후로 무척 낮은 비율을 보였다.

IV.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행태적 특성

1. 조사 개요

조사는 2010년 7월,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조사규모는 서천군 120명, 홍성군 40명, 금산군 30명, 청양군 22명 등 총 2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서천군이 47부, 홍성군 16부, 금산군 9부, 청양군 6부 등 총 78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유효회답은 서천군 39명(31.9%), 홍성군 16명(40.0%), 금산군 9명(30.0%), 청양군 6명(27.3%) 등 합계 70명(유효회답률 33.0%)이다.

2. 귀농·귀촌 실태

1) 귀농·귀촌의 목적

귀농·귀촌의 목적을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인간다운 삶을 위해) 때문이라는 응답이 2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농촌생활이 좋아서 22.1%, 직장 은퇴 후 노후휴양을 위해 13.2%,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11.8%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을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경우는 4.4%로 매우 낮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와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 등 농촌지역을 지향하는 응답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농하는 경향은 과거보다 확연히 낮아졌으며 이것은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목적에 의해 귀농·귀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귀농·귀촌지선택이유

현재의 거주지로 이주해 온 이유를 살펴보면,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모님이 거주(고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6.6%로 많았다. 그 외 농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15.0%, 지인의 소개 10.0%, 마을 사람(귀농·귀촌인 포함)들이 좋아서 10.0% 라는 의견

이 있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고향이라는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41.3%로 매우 높았다. 그 외 농업조건이 좋아서(13.9%), 지인의 소개(11.6%), 대도시와의 접근성 유리(9.3%)순으로 나타났다. 홍성군의 경우 농업조건이 좋아서가 42.9%, 젊은 귀농인이 많아서가 28.6%로 나타나 서천군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군, 청양군의 경우는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3) 귀농·귀촌 준비기간

귀농·귀촌을 위해 준비한 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33.9%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26.8%, 4년 이상이 23.2%, 2~3년 14.3%로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약 60%가 2년 이하로 비교적 준비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가계소득

가계소득 구조를 보면 응답자의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이 11~50%인 경우가 41.5%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10% 이하인 경우도 33.9%로 나타나, 귀농귀촌인의 대부분이 농외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업농에 가까운 농업소득 비율이 90% 이상의 경우는 13.2%에 불과하다.

3. 귀농·귀촌 유형 및 특징

귀농·귀촌을 하게 된 궁극적 목적과 생활 행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유형을 도출하였다(표1 참조). 응답자의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농촌지향형이 4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은퇴귀농형 18.6%, 전업귀농형 15.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유형적 특징을 살펴보면 서천군의 경우 도시출퇴근형이 평균보다 높았으며, 홍성군의 경우는 전업귀농형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다. 또한 금산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은퇴귀농형 비율이 다른 유형보다 두드러지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전업귀농형

전업귀농형은 본격적인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15.7%(서천 10.3%, 홍성 25.0%, 금산 11.1%, 청양 33.3%)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영농만으로 가계소득을 얻으려 농촌으로 이주하는 경향은 과거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형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계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비율은 평균 74.0%로 대부분의 수입원은 농업 활동을 통해 얻고 있으며, 영농규모는 약 1.54ha로 비교적 크며 과반수 이상이 경종(논농사+밭농사)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36.8%, 임차 63.2%로 임차비율이 높다. 또한 전업귀농의 형태로 이주한 자의 연령대는 30~40대가 63.6%,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9.1%로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2) 은퇴귀농형

은퇴귀농형은 도시에서 직장을 은퇴 또는 퇴직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겸업 형태의 영농을 하고 있는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로 귀농한 비율은 평균 18.6%(서천 12.8%, 홍성 6.3%, 금산 44.4%, 청양 50.0%)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비율이 평균 31.3%로 가계소득의 약 2/3를 농외소득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규모는 평균 0.74ha로 전업귀농형에 절반 수준으로 작으며, 영농형태도 시설원예, 축산, 가공형태가 많고 경종형태가 적다는 것도 전업귀농형과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 형태를 보면 자가소유 비율이 61.6%로 전업귀농형의 36.8%보다 높다. 이것은 영농규모가 작아 자가소유 비율이 높은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 유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50대 이상이며 60대 이상 비율이 69.2%를 차지 하는 등 전업귀농형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농촌지향형

농촌지향형은 농촌생활·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도시생활에 대한 회의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40.0%(서천 43.6%, 홍성 56.3%, 금산 11.1%, 청양 1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50대가 66.6%를 점유, 비교적 젊은 층이 많으며 출생지가 도시지역이 경우가 77.7%로 전체 유형 평균 53.9% 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귀촌 준비기간을 보면 65.4%가 2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 구조를 살펴보면 농업소득 비율이 25.7%에 불과하여 소득의 대부분을 농업외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노후휴양형

노후휴양형은 은퇴 후 농촌에서 휴양 또는 건강을 위해 요양할 목적으로 농촌에 이주하는 형태이다. 전체 유형 가운데 11.4%(서천 12.8%, 금산 33.3%)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홍성군과 청양군의 경우는 이러한 유형의 응답자가 없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전체의 85.7%를 차지하며, 출생지를 보면 71.4%가 농촌지역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농촌지역 출신 비율이 높다. 이것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태로 귀촌한 경우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본인 혼자 또는 가족 일부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형태의 60.0%가 영농활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 영농규모가 0.33ha로 매우 작으며 대부분 소규모의 시설원예 및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5) 도시출퇴근형

도시출퇴근형은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체 유형 가운데 5.7%(서천 7.7%, 홍성 6.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40~50대로

비교적 젊은 층이라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형태를 보면 절반 정도가 상시 농촌지역 거주가 아니라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형태라 생각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 궁극적 목적은 충남지역으로 이주해 온 귀농·귀촌인(가구)의 정착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귀농·귀촌인의 농촌 이주 목적, 수입원, 생활 형태, 영농 형태 등을 고려 귀농·귀촌행태를 유형화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과거 10년 간의 귀농가구 동향 분석 및 충남의 3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행태를 분석하였으며,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양형, 도시출퇴근형 등 5개 유형을 도출, 유형별 특징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김성수·정지웅·임형백·고운미·김정태·이성(2004)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방향」, 한국농촌지도학회지, 제11권 제1호.
- 김정섭, 2009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3호.
- 김형용, 1998 「귀농자의 실상과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2)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 2009 「2009 도시민 농촌유지지원사업 워크숍」 자료집
- 박영일, 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 귀농사례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학열, 2010 「충남의 귀농·귀촌 실태 분석과 과제」, 충남리포트 제40호, 충남발전연구원연구원
- 유학열·박철희·한상욱·조봉운(2007) 「영농 후계인력 영농정착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이민수·이승형·김명룡·김정섭(2009) 「도시민의 귀촌행태와 전라북도 대응방안」, 전북발전연구원
- 이재철·이도선, 2006 「지역밀착형 귀농인력 개발 및 활용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연구 보고서
- 정천섭, 2008 「귀농, 귀촌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 귀농, 귀촌 정책의 방향 및 시사점 - 전북 진안군 사례를 중심으로 -」, 지역과 농업 3호

바보기업의 성공전략

김성훈 | 대전 마을기업 교육컨설팅 기관전담 컨설턴트



대전, 마을 기업을 시작하다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대전지역 마을기업¹⁾ 6곳의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마을 기업은 주민 공동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을의 사람과 문화, 자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단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링컨의 민주주의 정의 어법대로 말하자면 마을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과 자부심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10년 넘게 관련분야에서 현장을 중심으로 실천해본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1999년 지역통화운동의 하나인 한발레츠를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2년 민들레의료생협을 함께 하였으며, 2003년부터 한국 주민운동정보교육원의 주민조작가 교육훈련과정, 2007년 50명의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된 대전 마을어린이 도서관 설립운동에 참여하고, 2008년부터 일본의 마을 만들기 운동, 생협운동,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견학하고, 2009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살고 있는 마을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영농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었다. 자발적으로 시작된 공동체운동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하였으며, 정부지원을 기회로 사회적으로 유용

1) 마을기업은 영국에서 시작된 community business를 일본에서 도입하여 발전시킨 운동으로, 2010년 행정안전부의 사업공모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었다가 다시 자립형 지역공동체로 바뀌었으며 2011년에는 마을기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 성과로 남기는 사업에 도전하고 훈련되었으며, 관련 사례를 연구 조사해온 경력을 가진 사람은 혼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일의 책임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에 참여하며

2010년 12월, 처음 마을기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주민을 만날 때의 설레임이 우려와 근심으로 바뀌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스스로 역량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6개 마을공동체가 7,6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시작된 이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에 의존한 사업으로 자부담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그것은 참여 공동체의 자발성과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주체의 주관적 열망은 있으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전략이 없었다. 특히 지역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사와 연구가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인데 이에 대한 지역조사와 연구, 문제의식과 대안이 없다면 이것을 과연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공동체 내부로 들어가보면, 의사결정구조가 불명확하고 사업자 등록이나 제조시설 허가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지위를 얻기 위해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사무행정과 회계처리 등의 마을기업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웠던 것은 공동체의 비전과 사명이 불분명하며 구성원간의 합의수준이 낮은 상태로 한두 사람의 희생과 리더십에 의존하여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신뢰비용과 갈등비용을 지출해야 할 것이고 투입 대비 산출이 저조하기 쉬우며 마침내 사업의 실패를 예상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마을기업에 참여한 동기조차 미심쩍었다. 과연 정부 보조금이 없어도 이 일을 하려고 하였을까? 보조금을 목적으로 급조된 공동체는 보조금의 중단과 함께 사업을 포기하기 쉬우며, 더욱 나쁜 경우에는 보조금 집행을 두고 다투다가 공동체 자체가 와해되는 사례 또한 흔히 발견되는 일이다. 이른바 '보조금 쥐약론'이 현실화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2011년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재심사와 신규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예년보다 많은 마을 공동체가 이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였다. 처음부터 제대로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실사와 심사에 임하였다. 그러나 현장을 다니며 참여자와 인



터뷰를 하고 다른 심사위원과 대화를 하며 얻은 결론은 상황이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거의 대부분이 전년도 선정된 마을기업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 보족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했다. 마을기업의 한계는 한국사회의 한계였던 것이다.

마을기업으로서의 한발레츠와 민들레의료생협

그럼에도 나름 새롭게 대안을 만들어왔던 지난날로부터 시사점을 얻고 싶다. 곰곰이 그 간 참여해 온 한발레츠로부터 시작한 마을 공동체운동과 대안경제운동에 대하여 돌아본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더디지만 조금씩 성장해 온 힘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찾아내보자.

한발레츠는 간단히 말해 대전지역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이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대신 ‘두루’라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행한 화폐를 통해 서로의 재화와 용역을 교환하는 제도이다. 지역통화운동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대안경제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500명 정도의 회원에 15,000건의 거래를 하며 3억원 정도의 거래중 2억원 가량을 두루로 거래하고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흔히 지역통화운동의 성공사례라고 소개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단지 실패하지 않는 사례일 것이다.

1999년을 시작으로 2000년 2월 70여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처음 기대만큼 잘 되지 않았다.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이 일의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들었다. ‘너희들끼리 돈을 발행한다고? 그거 말이 좋지, 되겠어? 그 돈을 누가 믿고 쓰겠냐? 무슨 소꿉장난도 아니고.’ 현행 화폐거래에 익숙한 사람들이 불편하고 낯설은 지역화폐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데다 거래목록에 올라온 재화와 용역을 신뢰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거래방식이마저 불편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거래에 참여하기를 주저하였다. 이는 현재 마을기업의 문제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당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었다. 품앗이 만찬, 품앗이 경매, 품앗이 학교,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과 관계증진을 위한 다양한 공식적·비공식적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관계가 깊어지는 만큼 조금씩 거



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민들레의료생협을 만들게 되었고, 이는 다시 한발레츠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지나온 12년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조합원 1,700세대와 6억원의 자산, 40여명의 직원, 그리고 14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민들레의료생협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은 창립 이후 7년째인 2010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의료생협이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위험요인을 안고 있다.

마을기업은 바보기업

글로벌 자본주의 경쟁체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마을에서 살더라도 공동체와 더불어 살기보다는 경쟁에 이기는 법을 익히며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마을엔 경쟁구조에서 패배한 ‘바보’들만 남았다. 돈도 없고 뺨도 없는 이타적 바보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마을기업이다. 즉, 마을기업은 한마디로 “바보기업”이다. 이것이 솔직한 한국사회 마을기업의 정의일 것이다. 따라서 마을기업의 성공전략이 이윤추구 중심의 일반 사기업의 방식을 그대로 좇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좇아서도 안될 것이다. 마을기업엔 마을기업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바보기업의 유일한 성공전략—공동체 비전과 사명, 그리고 협동

마을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여 성공한 사람의 현수막을 붙이는 것으로는 진정한 자부심이 생길 수 없다. 자부심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나의 내면에서 시작된다. 홍성풀무공동체 ‘주형로’ 농부의 자부심은 사람들의 비웃음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오리농법을 통한 쌀의 유기재배를 전국 최초로 성공시켰으며, 다시 이것을 개인의 이익에 머물지 않고 마을 공동체, 전국으로 확대한 것에 있다. 그는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100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그길로 가고 있다. 그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경영학의 핵심인 조직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현실에서 창조해내고 있다. 그것은 도시와 공존 공생하는 농업, 자연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비전과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였다.

현실적으로 마을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내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때 가장 큰 어려움



은 자본의 부족이다. I마트의 통큰 치킨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자본은 소규모 지역경제와 마을경제의 기반을 간단히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미 지속적으로 무너뜨려왔다.

가난한 바보들만 남은 마을 공동체가 그 바보스러움 속에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보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 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맞이하고 싶은 미래사회는 이기적 영재보다 이타적 바보가 주도하는 사회이다. 이타적 바보의 수가 많다고 해서 저절로 그런 사회가 오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과 불만만을 말해서는 오지 않는다. 이기적 영재보다 이타적 바보가 가장 결정적으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협동을 한다는 것이다.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되고,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뜻의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협동해야 한다.

삶의 터전인 지역을 지킴으로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의 원리인 연대와 협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보기업, 즉 마을기업의 성공전략이다. 어설픈게 이윤추구 기업을 따라하면서 자신의 존재근거인 공동체 비전과 사명을 잊고 경쟁의 방식에 물들어버린다면, 그것이 만에 하나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미 마을기업이 아닐 것이다.

세계 모든 협동의 선구자들은 말해왔다.

“협동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충남마을기행
 ●
 홍성거북이마을



술바람길 따라 떠나는 느림보여행

홍성거북이마을

정봉희 | 충남발전연구원 홍보팀장



내현마을, 거북이머리를 들다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에 자리 잡은 거북이마을은 “거북이 목처럼 생겼다”하여 구항, 구산, 귀목(구을뚝)이라고 하기도 하며, 거북모양의 바위가 머리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어 ‘내현마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오른쪽엔 ‘내현마을’, 왼

쪽엔 ‘거북이마을’이라 써져 있는데, 둘 다 같은 마을을 가리킨다.

필자가 찾아간 3월 어느날, 날씨는 봄을 재촉하는 화창하기 그지없는 날이었지만,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기온은 상당히 추운 여전히 겨울이었다.

거북이마을은 9가지 보물을 덮고 있다는 보개산이 병풍처럼 품고 있으며, 500년 된 느티나무



를 중심으로 담양전씨 3은(아은, 뇌은, 경은)을 모신 구산사(門陽毘), 그리고 전통가옥이 농촌의 향기를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말 그대로 예전부터 이 마을은 담양 전씨의 집성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37농가 121명의 마을주민들 중 담양 전씨는 4가구에 불과하다.

거북이마을도 여느 농촌마을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오래된 마을로서 50대 청년(?)이 가장 막내일 정도의 고령화된 마을이지만, 새로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을 주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친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있는 마을이다.

2000년대 초반 이 마을 출신 지도자들이 하나 둘 나섰고, 끈질긴 설득 끝에 삶의 무게로 닫혀있던 주민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였고 공동체 두레 정신이 되살아나면서 마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벼, 고추 등 일반 작물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이 마을만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한 농외소득의 경쟁력을 높여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어보자는 데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거북이마을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로 시작하는 “권농가”의 저자인 남구만 선생의 생가터가 남아있고, 충절의 아은, 뇌은, 경은 세장수를 모신 구산사와 도지정문화재인 담양전씨 문중의 자천공 전운상, 석천공 전상

의 영정과 한유도 등을 전시한 장충영각, 그리고 9가지 보물을 덮고 있는 보개산과 보리고추장 등을 자원으로 하여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되면서 오늘의 거북이마을로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한다.

● 거북이마을에서 거북이권역으로의 발전

전통테마마을로 선정된 후 감추어졌던 마을의 자랑거리가 훌륭한 자원이 되었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의식이 주민 저변에서 일어났으며 무엇보다도 비 참여농가들이 주택의 손질과 정원가꾸기 등의 솔선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또한 마을방문객의 증가로 농산물의 판매가 급증했으며 가격도 적정수준으로 대우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로 보개산 공원화 및 산책로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산주 22명의 전원동의를 얻어 주민 스스로 공원화 조성 20,900주(은행묘목 1,500주, 산벚꽃 650주, 윗나무 1,200주, 복숭아 750주, 참나무 6,000주)를 25ha에 식재하였으며, 농사체험과 전통음식체험, 전통예절교실 등의 운영으로 TV, 신문, 라디오, 책자 등에 홍성 거북이마을이 소개되었다.



〈여기는 거북이마을입니다〉



〈장충영각〉



〈약천초당〉



〈구산사〉

이는 주변마을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고, 같이하고 싶은 마을들이 동참하면서 생활권과 공동작업이 가능한 3개 마을을 권역으로 묶어 2007년 내현권역이라는 이름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다.

이곳 거북이마을에서 태어나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돌아와 현재까지 마을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병환 위원장은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잘하지 못해서 애를 좀 먹었지만, 일단 설득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정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면서 뿌듯해 하셨다.

결국 전국 115권역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서면심사와 예비타당조사 등을 거쳐 55개 권역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현지조사 및 최종평가 등을 통해 36개 권역이 확정되었는데, 내현권역은 거북이마을의 그동안의 성과에 힘입어 2008년 우수한 성적으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전 위원장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41억 5,700만원을 투입해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리모델링, 농산물 유통판매시설, 야생화 산책로 조성, 마을경영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고 자랑하셨다.

특히 가장 먼저 솔바람길 조성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제주 올레길을 시작으로 전국이 걷기 열풍이라면서



〈장충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전병환 운영위원장〉

내현권역만의 명품 걷기 코스를 계획하고 있었다. 걷는 곳마다 이야기가 설여 있고 소나무 향이 마음을 맑게 하는 보개산 길을 중심으로 ‘충남 솔바람길 조성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잘 해서 지역민들이 찾고 아끼는 홍성의 중심 레저 공간을 만들겠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소득의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내현권역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고사리 영농기반을 조성했는데, 한 해 생산되는 고사리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2차산업의 가공이 필요한 시점에 거북이마을의 보리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을 만들어 팔던 ‘구을목 전통장연구회’가 (주)지랑으로 발전하면서 충남형 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보리고추장은 물론 내현권역 고사리의 안정적 가공과 판로가 확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서 1년간 인건비(월 63만원, 최대 10명)와 전문인력 채용 보조금(기업당 1명, 월 150만원), 사업개발비(최대 1000만원) 등이 지원되며 기술개발 지도·공공기관 물품 구매시 우선권 부여 혜택도 주어진다고 한다.

● 거북이마을의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그래도 하룻밤은 자 봐야...

위에서 말했듯이 거북이마을은 보리고추장이 유명하다. 종가의 솜씨로 담가낸 텃밭하면서도 구수한 보리고추장과 직접 재배하거나 보개산에서 채취한 나물들을 섞어 만든 비빔



- i 보리고추장
- ii 산나물
- iii 외가집떡
- iv 전통주
- v 중가음식체험
- vi 방문객을 기다리고 있는 각종 전통놀이도구들

밥의 향과 맛은 정말 일품이었다.

이외에도 우리 농산물을 엄선해 만든 전통 그대로의 외가집떡, 솔나무를 비롯한 천연재료만을 사용해 만든 전통주 등 남녀노소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먹을거리가 한상 가득하다.

또한, 거북이마을은 농촌체험마을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먼저 마을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는 더위를 식히는 커다란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이 자리가 마을에서 가장 기운이 세다고 해서 맨발길과 기 체험 수련장 등을 만들어 명당체험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의 작가인 남구만 선생의 생가터인 약천초당에서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조 프로그램(걷는 시조, 읽는 시조, 체험 시조, 바꾸기 시조, 그리는 시조, 먹는 시조 등)을 체험할 수도 있다.



〈500년이 넘는 느티나무〉



i 다목적회관 전경
ii 구산사로 들어가는 마을 길

또한, 보개산을 중심으로 거북이 체험 탐방도 가능한데, 마을입구에서 보개산 7바위를 지나 구절암까지 돌아오는 코스다. 특히 7개바위(보살바위, 자라바위, 범바위, 삼형제바위, 곰보바위, 줄바위 등)마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따라 걷는 재미가 솔솔하다고. 앞으로 조성될 솔바람길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곳 거북이마을에는 담양전씨 종가집 할머니로부터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음식을 맛보고 비법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도 있다. 바로 종가음식체험이라고 하는데, 전통 꽃음식(화전, 진달래술, 대나무 통밥), 음료(송화밀수, 보리수단), 떡(국화송편, 꿀편, 녹두설기), 병과(야과, 다식, 사슬누름적) 등 다양한 종류의 종가음식을 체험



〈거북이마을 안내도〉

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전병환 위원장은 “마을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연간 방문객은 약 5,400명이고, 연 소득은 6,500만원 정도”라고 했다. 그리고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아오고 있으며, 도시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어린이들은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시골의 정취와 마트에서만 봐오던 채소 등 각종 농산물을 직접 채취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간다.”고 했다.

올해 거북이마을은 4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체험활동을 하던 동선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어진 다목적회관이 4월부터 개관한다고 한다. 필자가 찾았을 때 이미 외관은 다 지어져 있었고, 내부 작업만 일부 남았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같은 장소에서 체험활동과 민박을 동시에 수용했던 것을 분리하게 되면 좀 더 여유로운 체험과 민박이 가능해질 듯 하다.

이에 맞춰 전병환 위원장의 귀띔 한 가지 “봄에는 왕복 30리 벚꽃길을 따라 걷는 벚꽃축제가 아주 좋고, 4월부터 5월에 마을 한 가득 피어있는 봄꽃 모습은 정말 장관이다. 그리고 이어서 5월 중순쯤 열리는 양귀비꽃잔치도 좋은 경험일 것”이라고 말했다.



i 거북이마을의 봄꽃 가득한 모습
ii 고래의 꿈을 안고 사는 거북이마을

그리고 필자는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는데, 내현마을 입구를 지나자마자 좌측에 아주 작은 풋말로 '맑은 아침 수목원'이 있는 게 아닌가. 7,000여평의 산자락에 500여종 10만 그루의 나무와 우리 꽃들이 소담스럽고 아름답게 잘 가꾸지고 있다. 여기를 빼먹고 돌아가는 방문객이 의외로 많다는 후문이다.

계간지 발간에 맞춰 마을을 찾다보니 거북이마을의 모든 체험을 할 수 없었던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또한 이곳도 구제역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마을이어서 인지 외지인의 출입을 잘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4월부터는 가능하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온 가족이 여유있는 농촌의 풍경 아래 일상의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섬터로 한 번 놀러가 볼까... 고민해본다면, 고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홍성거북이마을에 솔바람 타고 훌쩍 떠나보는 건 어떨까

[여행 수첩]

● 찾아가는 길? 어렵지 않아요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IC에서 29번 국도를 따라 홍성방향으로 10분정도 가다 구항휴게소를 바로 지나 우측 구항초교 방향으로 들어온 후 1km 직진, 이정표 따라 좌회전해서 1.7km 직진하면 내현마을 입구가 보인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마을회관이 나오고 그곳에 주차하면 된다. 한편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에서는 예산수목사IC에서 나와 홍성 방향으로 21번 국도와 29번 국도를 따라 30분을 달려 구항면 이정표를 따라 빠져나와 곧바로 좌회전하면 된다. 여기부터는 구항초교 이후 안내와 동일함.

▶ 내비게이션 : 거북이마을보다 내현마을회관 또는 '홍성군 구항면 내현리 375-1'로 검색 추천!

▶ 홈페이지 : <http://geobukigo2v11.org/> ▶ 전화번호 : 041-632-7074

● 이왕 홍성을 갔다면 여기도 둘러보세요

홍성은 충남 서해안과 가까워 새조개로 유명한 남당항을 찾아가 보길 권한다. 그리고 천수만 궁리방조제를 중심으로 철새 관찰은 물론 드라이브 코스로도 손색없다. 그리고 이 두 곳은 서해안 일몰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또한 홍주성, 홍성민속테마박물관, 용의 몸집에 봉황의 머리를 얹은 듯하다 해서 붙여진 용봉산, 서해의 등대산이라 불리는 충남 제2의 고봉인 오서산 등도 추천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홍성군 광천읍에 위치한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그림이 있는 정원'은 어떨까?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얻은 임형재씨는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필화가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림)이다. 그러나 그 뒤에는 절망에 빠진 아들에게 뭔가 해줄 것이 없을까 찾던 아버지가 있었고, 아들의 그림을 그릴 소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소나무를 하나 둘 심기 시작했다. 그러기를 20여년... 아들만을 위한 커다란 정원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아버지의 애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수목원은 2005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고 홍성 8경 중 4경에 꼽힌다. 바로 '그림이 있는 정원'이다.



동 아 시 아 전략적 거점 답 사 - 중국, 싱가포르



오용준 |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 연구위원

1. 들어가며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경제활동의 예외조치를 허용해 주며, 각종 경제혜택을 부여해 주는 경제특별구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출범의 모태가 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 구상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동아시아 경제권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국경제의 부상이라는 위협요인을 기회요인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을 통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경제자유구역 정책인 것이다.

충청남도는 아산시, 서산시, 당진군 일원에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총 3조 1,079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PF(Project Financing)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못하고 있어, 향후 황해경제자유구역 규모의 적정성과 자족성 검토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¹⁾

이에 동아시아의 핵심경제주체인 중국 경제특구와 싱가포르항의 정책추진 체계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활용할 만한 정부 지침 및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싱가포르의 전략적 거점현장을 답사하였다. 본고에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동아시아 2개국 경제특구 및 물류거점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지식경제부에서도 2010년 말 전국의 6개 경제자유구역내 93개 단위지구(총면적 571km²) 전체에 대한 평가 검토를 실시하여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5.9%를 해제한 바 있다.

II. 주요 방문기관 및 면담내용

1. 중국 심천 경제특구관리청

1) 중국 경제특구의 개요

중국은 대외경제 개방의 실험무대로 1979년 4개의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외자기업에 대해 세제와 무역관리 측면에서 혜택을 부여해 왔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국가가 운영하는 특별경제구역으로서 총 140개가 개발목적에 따라 경제특구, 신구, 경제기술개발구, 첨단기술산업개발구, 변경경제협작구, 관광휴양구로 나뉘어 지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중국 광둥성 남부 연안에 위치한 심천 경제특구는 중국 3대 경제특구(상해·심천·빈해신구) 중 하나로 가장 먼저 지정되었다. 심천시는 광둥성의 홍콩 북쪽에 접경한 반원형 지형의 도시로서 1,949km²(경제특구 327.5km²) 규모에 인구 1,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중국내 경제규모 4번째 도시이다.

1980년 등소평이 지정한 중국 최초의 개혁개방 전진기지로 중국에서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이다. 개발 전 만해도 2만여 명에 불과했던 항구도시 심천의 인구는 현재 1,300만 명을 넘어섰고,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설립한 6만여 개의 공장 가운데 상당수가 심천에 자리할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요충지로 손꼽히고 있다.

심천은 연접해 있는 홍콩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여 화남경제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광둥성을 세계의 공장 및 중국의 물류중심, 대외교역의 중심(중국 전체의 30% 점유)으로 발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 주요 면담내용 및 현장조사결과

답사단은 2010년 12월 27일 심천시청과 심천 삼성 SDI를 방문하여 심천시 투자유치 기획담당과 삼성 관계자를 통해 심천 경제특구의 산업구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심천의 산업구조는 과거 전통산업에서 첨단기술산업으로 변화되었고, 생산형태는 위탁가공에서 자체 생산 및 연구개발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중이다. 1994년 심천의 첨단기술 관련제품의 생산액은 처음으로 100억 위안을 돌파했다. 1995년 심천시는 과교흥시(科教興市: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시 발전) 전략을 내놓았고, 첨단기술산업을 제1산업으로 하는 전략을 고수해 나갔다. 분배제도와 인재정책에 있어서도 제도혁신을 통해 혁신자원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였다.

심천은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시장 중심의, 기업 주체의, 산업화 목적의 지역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산(産), 관(官), 학(學), 연(研), 자본(資), 중개(介)가 결합된 것이다. 최근 심천 경제특구의 기업유치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①연구개발, ②기술의 상업화, ③인재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심천의 기업유치전략은 제조업 생산 중심에서 연구개발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유치기업의 90% 이상이 연구개발기능을 갖도록 유도함으로써 연구개발기금 및 기술특허의 90%가 지역에서 창출되었다.

둘째, 심천의 기업유치전략은 시장친화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혁신의 주요 방향을 시장수요에 맞추고 연구개발의 성과물이 상업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효과와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냈다.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셋째, 심천시는 경제특구가 중국 본토 내 대학의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홍콩대학의 R&D 기능을 기업체에 연결해 주고 있다. 심천시는 기업이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혁신인재규모는 날로 방대해지고 인재구조도 갈수록 최적화되었다²⁾. 심천시의 인재규모는 2009년 말 336만 명으로 그 중 전문기술인재는 98만6천만 명이다. 심천시에서

승인한 112만 9천만 명의 첨단기술기업 종사자 중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요원은 약 25만 명(박사 4,000명, 석사는 73,000명)에 달한다.

도시개발 측면에서 심천경제특구는 우리나라와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분양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주기업간의 임대료 경쟁을 통해 유망기업을 선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공공에서 이윤을 낼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임대료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심천시는 외국인 정주환경(국제학교 8개소 위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외로 진출했던 중국인재가 국내로 유턴하는 수요를 겨냥하고 있다고 한다.

심천시에는 우리나라 대기업인 삼성 SDI가 13억 인구의 거대시



〈심천시청과 경제특구 관계자 인터뷰 모습〉

2) 30년 전 심천에는 트랙터 수리공 한 명, 의사 한 명, 총 2명의 기술인력 밖에 없었음.

장을 공략하기 위해 진출해 있다. 삼성 SDI는 1992년 한중 수교 후부터 중국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1994년 중국정부의 CRT 신규 사업 허가가 금지되면서 어려움을 겪다가 국영기업(MAC 현대전자)을 인수하며 중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

삼성 SDI가 중국에 진출한 배경은 현지 디스플레이 공급업체와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절감 및 자재 현지화를 통해 모듈(Module)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삼성 SDI에 따르면, 최근 중국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유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임금인상법 시행으로 인해 인건비가 3-4년 전보다 2배로 높아졌고 이로 인해 경영주체와 노동자간 마찰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중국시장에 뿌리내리지 못한 국내 중소기업 위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중국은 거대한 소비시장과 노동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이다.



〈중국 삼성 SDI 전경과 인터뷰 모습〉

2. 싱가포르 PSA

1) 싱가포르의 개요

세계 최고의 물류파워를 가지고 있는 싱가포르는 서울시 보다 약간 큰 국토면적(660km²)의 도시 국가이다. 인구는 400만 명에 불과하고 세계적인 대기업도 없으며, 먹는 물까지 전량 수입해야 하는 천연자원이 전무한 섬나라이다.

1819년 영국의 동인도회사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싱가포르의 전략적인 위치와 상업적인 잠재성을 예상하고, 싱가포르 섬의 촌장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동인도 회사의 상업활동과 싱가포르항의 개항협정에 성공하면서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 싱가포르 섬의 인구는 약 150명에 불과했으나, 4년 후에는 1만 명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중계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 항은 개발 초기부터 자유항으로 개발 운영되었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1869년 이후 싱가포르 항은 본격적으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 싱가포르는 세계 제일의 컨테이너 환적 허브항만이며, 123개 국가 600여 항만과 해운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항은 2006년 현재 2,479만 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함으로써 중국의 상하이항과 세계 최대항만 1, 2위를 다투고 있다.

2) 주요 면담내용 및 현장조사결과

답사단은 2010년 12월 30일 싱가포르항만운영공사(PSA)를 방문하여 협소한 국토면적, 적은 인구,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 자원 또한 빈약한 싱가포르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물류강국이 되었고, 현재도 물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싱가포르 항만운영공사(PSA) 본사에 들어서자 싱가포르의 관광지로 유명한 센토사 섬이 한눈에 들어온다. 카지노로 유명한 센토사 섬에서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리자 거대한 크레인들이 뱅뱅하게 들어서 컨테이너들을 화물선에 옮겨 싣기 바쁘다.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업체인 PSA(정부투자기관 Temasek Holdings가 100% 지분 보유)에서 새 터미널인 파시르판장 터미널을 멀리서 보는 광경이다.

PSA 관계자는 싱가포르항 처리화물의 80% 이상이 환적화물인 특성을 고려해 항만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성과 신속성에 두고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싱가포르 항이 환적의 중심항만(Hub Port) 전략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①환적항만으로서의 지리적 이점, ②효율적인 항만운영체제, ③세계 모든 항만과의 높은 연계성을 들 수 있다.

먼저 환적항만의 지리적인 이점으로 말라카 해협에 위치해 있는 싱가포르는 세계 각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어 연계성이 뛰어나다. 싱가포르 항은 세계 각 지역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함으로써 화주입자에서 여러 직항로를 이용하기 위해 출항을 대기하는 시간상의 손실보다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항하는 싱가포르 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한다. 현재 싱가포르 항은 123개국 600여 항만과 200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세계 주요 항만과의 높은 연계성은 경쟁항만과 비교할 만하다.



〈PSA 전경과 내부 전시장 모습〉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싱가포르항은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인 포트넷(Portnet)³⁾과 컴퓨터통합터미널 운영시스템(CITO) 등의 물류시스템을 도입해 항만이용자와 항만 운영 당국 간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고 있다. 이 물류시스템은 컨테이너가 항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관련 정보를 전달받아 최적의 연결지점을 확보해 놓고 화물이 도착하는 즉시 목적지까지 가는 다른 배와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PSA의 무인톨게이트시스템⁴⁾도 인상적이다. 이러한 운영체제 역시 경쟁항만에 비해 싱가포르항이 환적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PSA를 통해 항만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구축된 항만 클러스터의 특징은 정유산업,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을 수행하는 물류단지, 선용품공급업과 수리조선업의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4개의 컨테이너터미널 배후에 물류단지가 입지해 있고, 여기서는 단순한 보관 분류 기능뿐만 아니라 포장 라벨링 배송 등 다양한 부가가치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III. 선진사례 답사의 시사점

항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유치 전략과 자족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중국 심천 경제특구와 싱가포르 항만운영공사(PSA) 답사를 통해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는 투자환경의 개선과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였다. 특구내 경제주체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도 특구의 경제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나, 생산과 연구개발기능이 동일한 장소에서 결합되어야 특구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심천 경제특구가

3) 포트넷은 PSARK 운영하는 싱가포르항과 선사 화주 운송업자 등 모든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류 없이 업무를 볼 수 있어 인력을 감축시켰음. 뿐만 아니라 화주가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화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음.

4) 컨테이너 트레일러가 터미널에 도착하면 무인시스템을 통해 운전기사과 컨테이너 차량 정보를 확인한 후 들여보내주는 시스템임. 포트넷을 통해 미리 서류작업을 해 놓으면 톨게이트에서 카메라로 트레일러와 관련된 정보를 인식한 후 무선호출로 포트번호를 알려준다. 트럭 당 소요시간은 25초에 불과함.

유치기업의 연구개발기능을 특구 내에 두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금 및 기술특허의 90%가 지역에서 창출되도록 하는 순환형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싱가포르항은 우리나라 서해안에 입지한 4개 경제자유구역의 무역항만이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다. 개별 무역항으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겠지만, 평택 당진항을 포함한 서해안 무역항이 공동으로 북중국 주요 항만들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항만의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서해안권 및 북중국 항만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한 얼라이언스 구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내륙권 대중국 무역을 총괄하는 무역관리기구 설치가 필요할 것이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항만시설의 조속한 확충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인접한 평택 당진항 육성을 위해 항만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한다. 싱가포르 항만 클러스터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닌 싱가포르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도 평택 당진항의 배후물류단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평택·당진항의 내항지역은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대중국 접근성, 항만지역 입지, 배후시장 등 동북아 최고의 자유무역 선호지역(글로벌 복합물류단지, 기반시설 확충, 친수 공간 정비사업 등)으로 조기에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둘러싼 상황변화로 인해 앞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핵심 산업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평택 당진항을 중심으로 한 항만 인프라와 인근지역 간 선교통망 구축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자기업 및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운영에 있어서 규제 완화,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국내 외 산업구조와 국제 무역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옥식 |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책임연구원

I. 서론

최근 들어 대중관광이 지니는 폐해와 역기능이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관광, 녹색관광, 자원봉사관광 등과 같은 대안 관광이다. 이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이 생태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자연환경의 보전을 주목적으로 하며 동시에 관광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 사회와 주민 그리고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에 재투자함으로써 보전과 지역경제의 순환 체계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자연환경에 대한 학습과 체험의 기회를 더 많이 갖는 것으로 기존의 관광과 구별된다. 따라서 생태관광은 생태계 친화적이며, 시설 위주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프로그램 위주의 관광 상품 개발을 지향하고, 관(官)이 아닌 주민과 NGO가 주도하는 형태를 띤다.

생태관광이 활성화된 지역의 경우 자연환경이 보전됨과 동시에 주민들의 소득 또한 많이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순기능에 힘입어 미처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내에서도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생태관광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다. 2005년 현재 전체 관광시장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5%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미국야생동물보호국의 추산에 따르면 연간 200억불이상의 규모를 지닌다고 한다.

국내의 경우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과 동시에 높아진 생활수준으로 인해 여가 활동에 대한 욕구 높아짐에 따라 생태관광의 잠재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진행된 '한국형생태관광 10선 선정 사업'과 '생태관광 인증제도'와 같은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생태관광에 대한 참여율은 아직은 낮고 생태관광 시장의 실적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 내에서도 아직은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낮고 관련된 법규 및 지원책마저 미비한 실정이다.

제10차 랍사르총회(COP10)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순천만이 생태관광지로 크게 부각됨에 따라 현재 명품 생태관광지로 선정된 10여개 지자체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생태관광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추진 방향과 자원의 상품화 방안에 대해 레퍼런스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생태관광을 통해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고 있는 호주를 방문하여 생태관광의 올바른 추진 방향과 방안, 그리고 자연자원의 상품화 전략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호주 내에서 동물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우수 사례지를 소비자 입장에서 체험하고 느낀 바를 정리하였다.

II. 방문 지역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1. 케언즈(CAIRNS)

케언즈(Cairns)는 퀸즐랜드 주의 북쪽에 위치한 관광도시이다. 인구 147,000명, 면적 488km²의 작은 도시이지만 인근에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대보초(Great Barrier Reef)와 열대우림이 위치하고 있어 이색적인 숲과 아름다운 바다를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비는 곳이다. 때문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백여 개 이상의 호텔과 리조트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로 인해 연간 60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이중 28억불은 호주 국내 관광객에 의한 수익이라고 한다. 케언즈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호 군락지인 대보초로의 크루즈와 열대우림 체험, 쿠란다(Kuranda) 민속마을 관광, 열기구 비행, 악어농장 체험, 와인마을 체



썬러버 크루즈에서 운항 중인 패속선



산호군락에 위치한 해양 테라스

험 등이 있다. 이들 중 대보초 크루즈와 열대우림과 쿠란다 마을을 체험하였다.

1) 대보초 크루즈 (Great Barrier Reef Cruisers)

리프트터미널에서 패속선을 타고 크루즈 회사 마다 소유한 산호초군락으로 이동 후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1일 관광 상품으로 썬러버, 오션스피릿 등 여러 개의 회사가 운영 중에 있었다. 그 중 하나인 썬러버(sunlover reef cruisers)의 경우 리프트터미널에서 패속선을 타고 육지에서 40km 떨어진 무어리프(moore reef) 이동하여 정박 후 산호초 군락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 등을 체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관광 상품을 진행하고 있었다. 반잠수정과 바닥 유리배, 스노클링, 물고기 먹이쇼, 뷔페식 점심 등이 전체 크루즈 비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체험 스쿠버다이빙과 씨워크(sea walker)다이빙, 헬리콥터 투어 등은 선택관광으로 별도 추가요금을 요구하였다.

요금제는 성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족 등 3가지로 구분되며 GIS(상품세), 환경세 그리고 항구세가 포함되어 있었다. 호텔 숙박과 연계한 패키지 뿐 만 아니라 열대우림과 쿠란다 마을 체험도 함께 할 수 있는 2일 관광 상품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주변에 함께한 관광객 대부분이 이들 연계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으로 케언즈를 방문하였다고 한다.

오전 9시 15분까지 체크인 후 10시에 출발하여 오후 5시 30분에 돌아오는 전체 7시간 30분 여정이었지만 이동 시간을 감안한다면 실제 산호군락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바닥 유리배와 반잠수정의 경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2번씩 운행하고 있었으며, 체험 다이빙은 개인별로 주어진 시간에만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었다. 스노클링의 경우는 정해진 시간 없이 정해진 공간 내에서 임의대로 즐길 수 있었다. 해양 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산호위에 서거나 걷는 것과 해양 생물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해양 생물 체험용 수족관을 비치하여 직접 만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i 선택 관광 중 하나인 체험다이빙
(사진 : 썬러버 크루즈 홈페이지 인용)
- ii 반잡수정 내부 전경
- iii 물고기와 함께 하는 스노클링
- iv 해양 생물 체험용 수족관

열대 산호 속 다양한 물고기를 보고 바다 속을 헤엄쳐 다닌다는 흥미로운 체험으로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몇 가지 이점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먼저 산호 군락에 머무는 4시간 동안 점심 식사와 체험 다이빙, 반잡수정 체험과 스노클링은 체험 할 수 있었지만 그 외의 프로그램을 참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또한 산호 보호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찾는 관제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산호 군락은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쉬웠던 점은 한정된 스노클링 장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지만 세척없이 그대로 다음 사람이 사용해야함으로 비위생적인 관리가 주는 불쾌감이었다. 해양생물에 대한 강의가 있기는 했지만 터미널과 산호군락 간 긴 이동시간 동안 지루함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2) 쿠란다 1일 관광

쿠란다 1일 관광(DAY TOUR)은 쿠란다 민속마을 방문, 열대우림 체험, 쿠란다 기차, 스카이라일, 야생동물원 등 다양한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쿠란다 마을에 가기위해서는 관광기차와 스카이라일(Skyrail), 산간 도로를 자동차로 달려 도착하는 방법 등 3가지가 있으며 많은 경우 차량을 이용하기 보다는 스카이라일과 관광기차 두 가지를 병행 이용하고 있었다. 1일 관광의 경우 케언즈 내 숙소에서부터 직접 픽업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숙소까지 돌아오는 하루 여정이다. 1일 관광을 주선하는 여러 회사가 있으며 운전사가 차량 운행 뿐 만 아니라 손님들 체크인 확인 및 가이드 역할까지 하였다. 우선 케언즈의 곳곳에 흩어진 숙소를 돌며 예약

- i 프레쉬워터역으로 들어오는 기차
- ii 기차 내부 모습
- iii 다리를 지나는 기차
- iv 종착역인 쿤두역



자를 모두 태운 후 8시 20분 경 프레쉬워터 역에 손님을 하차시킨다. 손님들이 쿠란다 관광기차를 이용하여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미리 대기 후 손님을 다시 태우고 쿠란다 마을까지 안내하고 쿠란다 마을 체험과 점심식사, 열대우림 체험을 마치게 되면 스카이에일 역까지 손님을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스카이에일을 통해 하산하는 손님을 종착역에서 태워 숙소까지 안내하는 전 일정을 운전자 1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오전 7시 30분에 숙소를 출발하여 오후 5시 40분에 숙소 도착하는 1일 관광 상품이었다.

(1) 쿠란다 관광기차

지금의 관광기차는 쿠란다 마을의 광물 채취와 목재 생산을 위해 건설된 것으로 1887년에 착공하여 1891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전체 운행 길이는 75.1km 이며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327m의 높이를 오른다. 프레쉬워터역(freshwater station)을 출발하여 도착역인 쿠란다역까지 총 1시간 45분이 소요되며 15개의 굴과 37개의 다리 그리고 98번 급회전한다. 광업과 임업에 대한 채산성이 줄어들자 1930년대부터 관광열차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승객은 모두 관광객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 i 바란폭포를 감상하기 위해 정차 중인 기차
- ii 바란폭포 주변 협곡
- iii 차푸카이족의 창던지기 시범
- iv 차푸카이족의 전통춤 공연

(2) 쿠란다 마을

쿠란다 마을은 케언즈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호주대륙의 원주민 중 하나인 차푸카이(Tjapukai)족이 사는 마을이다. 약 1만여년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유럽인들에 의해 19세기 말부터 개척되었다. 현재 마을에는 약 65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지역과 차푸카이 족의 음악과 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쿠란다 마을에는 전통공예품을 파는 시장과 기념품점들과 함께 새공원, 코알라공원, 야생동물원, 나비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쿠란다 마을에서는 창던지기과 전통 악기를 관람하며 부메랑던지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캥거루 춤과 같은 전통 춤 공연도 관람할 수 있었다.

(3) 열대우림체험

쿠란다 열대우림지는 1988년에 'Wet Tropics of Queensland World Heritage'라는 공식 명칭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한다. 면적은 90만ha로 호주 전체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3000여종의 가까운 식물과 함께 나무캥거루, 화식조 등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열대우림체험은 수륙양용차를 통해서만 이뤄지며 가이드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정해진 코스를 정차와 이동을 반복하며 열대우림 내 다양한 생물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탐방객이 직접

도보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하고 수륙양용차 또한 정해진 코스만을 돌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더라도 이들에 의한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다.

(4) 스카이라일(Sky Rail)

스카이라일은 그린글로브(Green Globe)가 인증한 세계 최초의 관광 상품이며 호주 내에서도 생태관광 인증을 받은 첫 번째 상품이라고 한다. 또한 환경경영인증(ISO14001)도 획득했다고 한다. 소득의 분배를 위해 자금을 조성하여 스카이라일 열대우림재단(Skyrail rainforest foundation)을 설립하고 열대우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스카이라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로 길이는 7.5km에 달하며 출발지에서 종착역까지의 운행시간 또한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스카이라일은 바린협곡국립공원 내의 광활한 원시 자연열대우림의 상공을 지나며 다양한 식생을 목격할 수 있다. 1995년에 완공하였으며 1여년의 공사 기간이 소요 되었으며 열대우림 보

호를 위해 모든 철탑은 헬기로 공수하였다고 한다. 가장 긴 철탑의 높이는 40m에 달한다고 한다. 승강기는 총 114대가 운행되며 중간에 레드피크역(red peak)과 바린폭포역(barron fall) 두 곳의 정거장에서 체류할 수 있다. 레드피크역의 경우 해발 545m에 위치하며 역 주변으로 열대우림을 거닐며 체험할 수 있는 175m 길이의 탐방로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레인저들의 생태해설도 함께 들을 수 있다.

바린폭포역의 경우 해설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열대우림에 관한 전시와 해설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정해진 스케줄 따라 진행되는 생태해설가의 설명도 열대우림 내에서 직접들을 수 있었다. 탐방로와 함께 바린협곡과 폭포와 같은 경관을 관람할 수 있는 파고라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국립공원과 자연유산 지역에 초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i 열대우림 내 습지를 운행하는 수륙양용차
ii 열대우림에 대해 설명하는 가이드와 탐방객



i 열대우림 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레인저
ii 열대우림 상공을 지나가는 케이블카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탐방객에 환경에 대해 폭넓은 체험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보전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면을 통해 지금은 최고의 생태관광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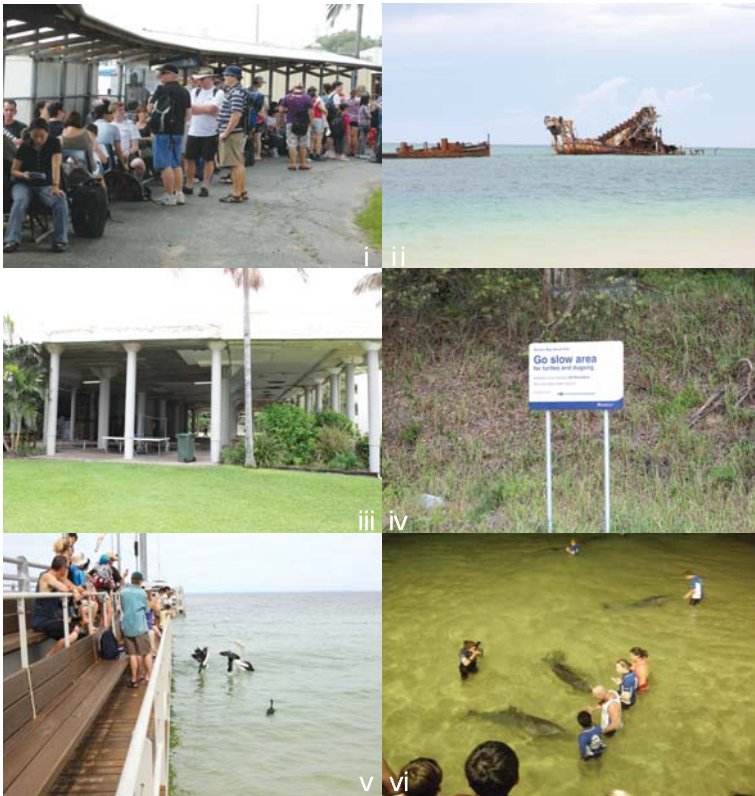
2. 모턴섬(Moreton Island)

퀸즐랜드 주의 수도인 브리즈번에서 북동쪽으로 58km 위치한 모래섬으로 면적은 170km²이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모래섬으로 섬의 전체의 95%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섬 주변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많은 고래가 찾아와 서식하는 관계로 포경의 전초기지로 이용되었다

고 한다. 실제 1952년부터 1962년까지 총 6,277마리의 혹등고래가 포획되었다고 한다. 포경이 전면 중단된 이후 고래관찰관광과 캠핑, 사막사파리 투어를 위해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며 특히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부 요트를 소유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섬을 찾는 것을 제외하고 섬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섬의 북쪽 해안에 위치한 탕갈루마 리조트에서 투숙객이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모턴섬을 가기 위해서는 브리즈번의 핀켄바(Pinkenba)항에서 페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

탕갈루마리조트는 생태체험과 휴양 그리고 액티비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 중이었



i 항구에서 페리를 기다리는 관광객
iii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고 보관하던 창고
v 펠리칸 먹이 주기

ii 인공어초 역할을 하는 난파선
iv 섬의 곳곳에 위치한 자연보호용 안내판
vi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

- i 해변에 위치한 관람석
- ii 관람석 내 탐방객
- iii 펭귄 서식지 주변에 조성된 탐방로
- iv 자연공원 곳곳에 위치한 펭귄 굴



다. 프로그램은 주간과 야간 그리고 요일별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사막사파리와 다양한 해양스포츠, 쿼드바이크, 헬리콥터 투어 외에 돌고래먹이주기체험, 고래관찰크루즈, 듀우공관찰크루즈, 야간생태탐험(night spotlight eco walk), 해양생물크루즈(marine discovery cruise), 어린이를 위한 해양생물 강의(eco kids), 물고기 먹이주기(fishing feeding), 펠리칸먹이주기, 난파선 스노우클링, 모턴섬에 사는 희귀조류인 쿠카부라 먹이주기(kookaburra feeding) 등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 준비되어 있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영어, 일어,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여러 언어로 된 안내책자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직원도 상주하고 있었다.

3. 필립섬(Philip Island)

빅토리아주의 멜번에서 남동쪽으로 140km떨어진 섬으로 전체 면적은 10,000ha이다. 필립섬은 자연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펭귄 프레이드와 이와 함께 바다표범 군락,코알라 보전센터 그리고 야생동물공원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기위해 해마다 350만 명의 관광객이 이 섬을 찾는다고 한다. 특히 펭귄 프레이드의 경우 80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야생동물과 관련한 상품으로는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다.



i 코알라를 관찰하는
탐방객
ii, iii 코알라 보전센터
전경과 휴식중인
코알라

펭귄 프레이드는 필립섬의 서쪽 끝지역에서 번식하는 펭귄무리들이 낮시간 동안 먹이를 먹은 후 저녁 해질녘에 해안가에 오른 후 모래사장을 건너 언덕에 파놓은 굴 속의 둥지로 돌아가는 수 백마리의 펭귄들을 가까이서 직접 관찰하는 상품으로 ‘프레이드’라는 명칭에 어울리게 끊임없이 줄지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프레이드는 약 50분 동안 계속되며 탐방객들은 해안가에 위치한 관람석과 언덕에 자리잡은 테크 등 야외에서 펭귄들을 직접 관찰하게 된다. 방문자센터와 해변의 관람석 그리고 관찰테크, 주차장 외 시설물은 간소화 하였으며 정해진 경로 이외에는 대부분 출입을 봉쇄하고 있었다. 특히 방문자 센터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진촬영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으며 곳곳에 배치된 자원봉사자와 레인저들이 통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때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펭귄의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뉴질랜드 샌드플라이(Sandfly)와는 다르게 이 지역은 ‘필립섬 자연공원 관리위원회’에 의해 서식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었다. 위원회는 자치기관으로서 펭귄 개체군에 대한 연구활동 뿐 만 아니라 교육 및 보호활동도 실시하고 있었다. 입장료와 기념품 판매를 통한 수익금은 필립섬 야생동물의 보전에 이용된다고 한다.

III. 맺음말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보전과 지역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지역을 체험하고 난 뒤 느낀 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탐방객 만족도 증가를 위한 탐방객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태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1. 서식지 관리 시스템 마련

멜번의 펭귄 서식지는 필립섬 자연공원 관리위원회(PINPBM)가 시행하는 엄격한 5개년 관리 프로그램으로 잘 보호되고 있었다. 관리 시스템을 통해 펭귄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익도 크게 향상되었다. 결국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두 성공하였다. 수입 또한 섬규모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2006년부터 펭귄 관련 기념상품을 판매하면서 더욱 수입이 증가했다. 이 수입들은 모두 탐방로 수리, 4,000석 규모의 관람석 설치 등 공원 관리에 사용되었다고 한다. 반면 뉴질랜드의 샌드플라이(Sandfly) 만은 2000년부터 두 개의 기관이 펭귄 관광을 시작하였으며,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자 뉴질랜드 보호국에서는 관광객들이 펭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곳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시설물들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설치한 시설은 20,000명을 넘는 관광객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도 없었고 서식지 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관광객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펭귄들은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말았다.

이 두가지 사례를 볼 때 엄격한 관리시스템만이 생태관광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도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2.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체계 확립

방문한 지역 대부분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거나 국립공원이나 자연공원에 속해 있었다. 이는 이미 시장에 널리 알려진 브랜드처럼 소비자에게는 높은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는 역할을 한다. 실제 사례에 의하면 국제적 인증과도 같은 세계유산이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탐방객이 10배 이상 증가한다고 한다. 또한 공원의 지정은 자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법체제 혹은 제도권 내

에서 가능하며 재정 지원 또한 용이하게 된다. 뿐 만 아니라 관리체계 또한 획일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관광지의 보호구역 지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중국의 경우도 보호 구역이 증가함에 따라 1960년대 303명이었던 외국 관광객이 현재는 매년 3,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으며, 국내 관광객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8.7억 명으로 증가했다. 반대로 중국의 동부 인구 밀집 지역 주변의 보호관리 지역의 경우 관리제도 및 계획의 부재와 함께 8개의 각기 다른 기관이 이들 지역을 관리할 뿐 만 아니라 경쟁적으로 자원의 이용과 약탈에만 치중해 오다 중국엔 생태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를 보더라도 관리체계의 확립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금산을 세계적인 인삼 메카로 키우기 위한 체질개선

- 내가 먹은 인삼이 나의 건강을 만든다 -



이숙경 | 단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24조 달러의 국제인삼시장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화기삼이 72%, 중국삼이 25%, 우리나라 고려인삼이 2.8% 유통되고 있으며, 수출은 10년 사이 1/3로 줄어 국제 인삼거래의 중심지인 홍콩에서 고려인삼제품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으니 우리의 “국보 농산물”이며 바이오산업의 반도체로 수천년을 지켜왔던 “인삼 종주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현재의 인삼산업은 분명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금산인삼>브랜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인삼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으나 재배적지의 고갈과 인력난과 같은 생산여건의 악화와 경쟁국들의 세찬 도전과 개방화에 따른 안팎의 어려움을 넘어 금산인삼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화를 위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의 전략을 짚어본다.

효능차원에서는 고려인삼의 우수한 약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근거 없는 약효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인삼의 대표적인 약리작용은 “적응소(Adaptogen)효과”로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비특이성 생체방어능력을 증대시켜 병적상태를 정상화시키는 작용이다” 즉,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화롭게 하는 “자연치료제”로 고려인삼에 함유된 진정·흥분작용의 성분이 몸의 상태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저혈압은 혈압을 높여주고, 고혈압은 혈압을 내려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삼이 고혈압에 좋지 않으며, 열을 올리는 효능이 있어 여름에 적합하지 않다는 “잘못된 인식”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퍼져 있는 것도 수출에 장애가 되므로 약효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되어야 한다.

생산·가공차원에서는 농약의존도를 줄이고 인삼의 섭취방법과 가공에 알

맞은 품종의 개발과 재배, 생산 및 품질의 규격화를 위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의 도입이 필요하며, 인삼의 단순가공제품을 탈피하고 인삼산업의 성패 분수령이 될 신약 등 다양한 우수건강기능식품개발과 함께 제조시설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건강기능 식품제조기준”(GMP)으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야겠다.

유통차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 전국 수삼의 80%가 거래되는 금산인삼시장 수삼센터에서상인들이 자체적으

로 30여 등급으로 구분하고, “큰뿌리는 6년근, 작은뿌리는 4~5년근”이라는 관행거래를 벗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거래등급의 표준

화를 위해 제정한 “수삼표준규격”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유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한국인삼공사에서 수매하는 6년근 수삼 생산량의 15%를 제외하고는 발떼기로 거래되고 100~200명의 수집상이 주도하는 산지유통구조, 위탁상·중간도매상 등 6~8단계의 유통과정, 40~70%의 유통마진율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에서 유통·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생산·가공·유통 계열화사업이 필요하다.

마케팅차원에서는 세계 각 도시에서 열리는 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야 하고 더불어 홍콩과 대만은 뿌리삼을, 일본과 유럽 등은 제품을 선호하듯 지역별 마케팅전략과 다양한 제품을 고가제품과 중저가제품으로 차별

화전략이 필요하며 인삼의 학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를 양성하는 새롭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된다.

기획, 정책차원에서는 인삼의 수출잠재력을 키우기 위하여 국제식품위원회(CODEX)에 제안한 인삼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확정되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이 가입하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인삼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개발, 확장, 연구, 신제품 개발 등에 실력과 영향력이 있는 국내외 기업의 참여를 독려

하는 정책지원과 자금 지원을 통한 적극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

금산인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화를 위한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의 필요

”

문화차원에서 충남도의 “일본과의 교류 전

락을 백제문화와 인삼, 벤처기업을 함께 묶어 추진” 사업이 꽃을 피우길 간절히 소망하며, 금산인삼축제는 문화체육부 최우수축제인 만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드는 감동의 문화축제로 더 활성화하여 “금산인삼은 건강”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얼마나 각인시키느냐?에 따라 인삼종주지인 금산과 충남에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기에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다.

관광, 문화 · 사람 · 자연에 흠뻑 젖다



박근수 | 배재대학교
관광이벤트경영학과
교수

관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빠름을 모토로 한 패키지관광에서 느림을 모토로 하는 에코투어리즘(Ecotourism)으로 관광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여행객들이 점점 더 많이 느림을 즐기는 관광을 찾는 반면 일상생활 속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빠르고 급한 모습이다. 얼마 전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한국인의 하루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속 시간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늦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산다고 생각하고 국민 6명중 1명(미혼여성은 3명중 1명)이 아침식사를 거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바쁜 생활속에서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느림의 생활양식을 관광을 하면서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에코투어리즘은 Ecology(생태)와 Tourism(관광)의 결합어이며 자연관광의 한 형태로서 멸종의 위협을 받는 동·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체험하는 관광유형이다. 필자는 에코투어리즘을 방문하는 지역의 문화, 사람, 그리고 자연을 배려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에코투어리즘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착한여행, 공정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착한여행이란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현지주민들의 식당이나 숙소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경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소비, 그리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 나라의 인사말 배우기와 같은 행동수칙을 지키는 여행을 말한다. 얼핏 보기에 힘들어 보이는 이러한 여행을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행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나온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관광 전문가들은 여행의 정수는 바로 여행하는 지역의 '문화체험'이라고 생각한다.

느림이라는 화두를 안고 변화하는 관광의 패러다임에서 최근 인기리에 등장하고 있는 도보길여행은 여행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맛깔스러운 여행이다. 도보여행길로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스페인의 '카미노 데 산티아고

(Camino de Santiago)의 전체코스인 800km를 몇 달에 걸쳐 걷기 위해서 전 세계 600만명 이상의 여행객들이 매년 이 곳으로 오고 있다.

일본의 불교 순례여행길인 '시코쿠 순례여행길'에도 연간 15만명 이상의 도보여행객들이 찾고 있다. 도보여행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걸으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또 다른 도보여행객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진정성있는 경험을 여행객들에게 맞출 수 있게 해준다.

국내에서도 2007년 제주 올레길이 조성되면서 도보길여행이 시작되었으며 2009년 올레길 관광객이 25만명 정도로 늘어났다. 제주 올레길이 불과 3년만에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수 있었던 것은 올레길을 통한 도보길여행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상생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밀감 철에는 밀감 밭마다 올레길에 밀감을 내놓고 올레꾼들이 무료로 맛보게 하는데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여행객들에 대한 배려는 여행객들의 가슴에 감동을 가져다주었다. 올레꾼은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그 마을의 아름다움, 지역주민들의 따뜻한 마음과 문화를 가슴에 담아가는 대신 지역민이 운영하는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지역민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점포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서로가 상생하는 여행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충청남도의 관광도 '느림의 관광'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충청남도과 공주시가 대

전광역시, 충북도, 보은군, 청원군, 그리고 옥천군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은 충청남도가 시도하는 관광 패러다임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녹색생태관광사업단이 발족되어서 향후 3년간 정부와 지자체 예산 84억원을 투입하여 진행되는 대규모 도보여행길 조성사업인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의 호반길이 될 것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개 광역시도와 4개 시군이 협력하는 '대청호반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왜 사람들이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일본의 '시코쿠 순례여행길', 그리고 제주의 '올레길'을 찾아가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도보길여행은 여행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만남에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제주 올레길에서 만난 지역주민이 밀감을 무료로 먹여보라고 건네주는 모습에서 여행객들은 사람사는 맛을 느끼는 것이다. 여행객들은 지역특산품을 먹기도 하고 주문도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며 스쳐가게 된다. 대청호반길을 조성할 때도 도보여행객들과 대청호반 마을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할 수 있는 도보길 조성철학이 요구된다.

'대청호반길 사업'의 성공이 계기가 되어서 충청남도가 시도하고 있는 '느림의 관광'으로의 변신이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행복한 관광경험이 되고 서로가 상생하는 여행구조를 만들어나가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려인삼의 진면목을 팔자



하광학 | 2011금산
세계인삼엑스포조직
위원회 교역운영부장

약 150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고려인삼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외교수단과 교역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고려인삼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을 찾아보면 중국 양나라의 도홍경은 중국 삼과 백제삼(고려인삼)을 비교하면서 '백제삼은 형태가 기늘고 견고하며 희다'라고 했으며 '중국삼은 크나 연하고 허하여 백제삼만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백제삼을 극찬하고 있다.

또 18세기경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은 한국을 일컬어 '인삼과 모자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고려인삼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숏한 역사기록과 전설 일화를 갖고 있는 고려인삼은 우리지역의 금산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지역에서 다양하게 분포 재배되면서 고려인삼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금산지역은 과거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 최대의 재배면적을 자랑할 정도였으나 인삼의 특성상 연작재배가 불가능하여 현재는 약 5%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작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금산지역 경작자들은 전국의 각 지역을 찾아가 임대차 경작을 통해 인삼을 수확하여 금산 인삼시장으로 수송해 오면서 전국 생산량의 약 70%가 거래되고 있고, 금산군민 전체인구의 약 50% 이상이 인삼약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전국 최대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삼하면 금산, 금산하면 인삼'이라는 공식이 통하고 있으며 지금도 고려인삼의 옛 명성을 당당하게 이어오고 있다. 가히 금산의 인삼생산농가와 유통 상인들의 근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와서는 한국의 문화상징 베스트10, 대한민국의 3대 이미지상품(인삼, 김치, 태권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함께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러한 고려인삼에 위기가 닥쳐왔다.

서양삼(화기삼)을 비롯한 중국삼, 미국삼(야생삼) 등 전 세계적으로 인삼이

대량 재배되고 있어 외국삼의 물량공세가 심상치 않다.

또 인삼을 먹으면 열을 내게 한다는 승열작용설 (외국인의 판촉전략?) 유포와 외국삼의 부정유통 및 잔류 위해성분 검출 의혹, 한미 FTA 협상체결 등 인삼산업 종사자들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인삼산업의 전문가와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현지 분위기를 종합해 보면 외국인들도 고려인삼의 효능과 우수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판촉 전략이나 가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국삼과 비교해 볼 때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가로놓여 있다고 해서 움츠러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9. 2일부터 10. 3일까지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와 인삼시장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이라는 주제로 32일간 개최된다.

인삼엑스포, 과연 무엇을 팔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행사기간 동안 단순히 관람객들을 많이 불러들여 당장의 잇속만 챙기면 된다는 속셈은 접어야 한다. 그야말로 인삼산업의 먼 장래를 위해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고려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개발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우수한 제품의 생산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서 명품화시켜 나가는 일에 조직위원회와 금산군, 인삼생산 및 유통상인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제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앞으로 약 5개월 남았다. 금년 엑스포는 2006인삼엑스포와 비교해서 확실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세

워야 한다. 행사가 오픈되자마자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서 그 소문이 꼬리를 물어 구름처럼 몰려오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국내·외 석학 등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고려인삼 효능의 우수성에 대한 열띤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나 인삼수출의 가장 장애요인이었던 승열작용설에 대해 역공세를 펼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효능홍보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그동안 청소년층에게는 인삼이 기피의 대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인삼의 효능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인삼과 보다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고자 한다.

인삼생산 및 유통상인 역시 청정인삼의 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먹은 인삼이 만에 하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누가 다시 인삼을 찾겠는가를 되새겨 보고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부정인삼 유통 및 바가지요금 근절 등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항상 쾌적한 시장환경의 조성과 친절한 손님맞이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처럼 조직위원회와 금산군의 다양한 글로벌 홍보마케팅 전략과 함께 우리 인삼산업인 모두가 청정인삼의 생산과 다양한 고품질 명품개발을 통해 세계를 향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때 인삼엑스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으며 우리 인삼산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한다.

고려인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인삼산업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이다.

억세계 운(運)좋은 여행



권오덕 | 전 대전일보
주필

억 세계 운(運)좋은 여행이었다. 여행을 술하게 다녀왔지만 이번 여행처럼 운수 대통한 여행은 처음이었다.

지난 2월 중순, 10일 일정으로 다녀온 뉴질랜드·호주여행은 시작부터 끝까지 행운의 연속이었다.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행운이 우리 부부에게 찾아와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됐다.

나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해외여행을 다녔어도 호주·뉴질랜드는 나중에 갈 생각으로 남겨 놓았었다. 우선 시차가 짧고, 청정지역의 선진국이어서 나 이 들은 다음에 가도 충분하리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그동안 아껴 놓았다가 이번에 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서 보니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오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 편도 10시간이 넘는데다, 현지에서의 이동시간이 길어 젊은이들도 결코 쉽지 않은 코스였다. 스케줄이 빡빡해 하루에 보통 7~8시간씩 차를 타다보니 체력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필자부부는 무난히 이를 소화해 냈고, 또 아주 만족스럽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

더구나 우리 부부에게 크고 작은 행운까지 찾아와 여행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었다. 첫 행운은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잡았다. 오후 5시 인천공항을 이륙한 국적 항공기가 남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도착 1시간여를 남겨 놓았을 때였다. 막 잠에서 깨어난 나는 차창 커튼이 붉게 물들어 있음을 보았다.

마침 우리부부의 좌석이 창가에 있어 얼른 커튼을 열어 제쳐보니 붉은 태양이 구름사이로 빠져나오고 있었다. 엄청나게 빨간 태양이었다. 이렇게 아름답고 붉은 태양을 나는 일찍이 본 일이 없었다. 그것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떠오르는 태양을 말이다. 카메라를 꺼내들고 셔터를 계속 눌러댔다.

그 시간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맞은 여행 첫날 아름다운 붉은 태양을 접한 우리 부부는 기분이 아주 상쾌했다. 행운은 이틀째도 이어졌다. 뉴질랜드 남섬 로토루아의 호텔에서 자고 새벽 6시30분쯤 산책하러 인근 주택가에 나갔다가 또 다시 행운을 잡았다.

선명한 쌍무지개를 본 것이다. 어렸을 적 더러 무지개를 본 일은 있으나 쌍 무지개는 처음이었다. 워낙 청정한 국가인데다 전날 비를 뿌려 무지개가 뜬 모양이다. 무지개를 뒤로 하고 동네마음을 돌아보니 대부분 울타리가 없고 대신 아름다운 나무와 꽃을 심어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았다.

무궁화를 심은 몇몇 주택도 보였다. 우리 부부가 쌍무지개를 보았다고 하자 모두들 부러워했다. 행운은 뉴질랜드 남섬으로 이어졌다. 퀸스타운의 호텔에서 이른 새벽 식사하러 호텔 식당으로 가던 중 앞마당에 나갔다가 우연히 하늘을 쳐다보고 깜짝 놀랐다.

하늘에 수만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너무 감격해 할 말을 잃었다. 문득 “남쪽 나라 십자성은 어머니 얼굴...”이라는 50년대 유행가가 떠올라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내가 좋아하는 오페라 아리아 ‘별은 빛나건만’을 조용히 노래 불렀다. 식사 후 일행과 함께 다시 나가보니 어느새 별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닷새간의 뉴질랜드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여정인 호주로 갔는데, 행운은 이곳 시드니에서도 이어졌다.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는 높다란 아치형의 하버브리지와 조개껍질 모양의 오페라하우스가 도심 빌딩 숲과 조화를 이루어 무척 아름다웠다. 시드니가 도시 브랜드 경쟁력에서 런던, 파리를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를 알 것만 같았다.

마침 시드니항구에는 거함 퀸 엘리자베스호와 퀸 메리호가 위용을 자랑하고 입항해 있었다. 그

사이를 수많은 요트를 비롯한 크고 작은 배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어 한 폭의 수채화 같았다. 우리는 곧 이어 어마어마한 오페라하우스의 콘서트홀 내부를 관람하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곳에서 시드니교향악단의 리허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수확이었다. 리허설 장면은 아무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휘자가 피아니스트인 거장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74)라는 사실에 눈물 나도록 기뻐했다. 불과 7~8분의 짧은 구경(?)이었지만 이 또한 행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까지 소개한 행운은 이제 설명할 행운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었다. 우리가 뉴질랜드를 떠나고 불과 이틀 뒤 남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지진으로 수백 명이 죽고 도시가 파괴된 게 그것이다.

우리가 이를 늦게 떠났더라면 큰 변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가이드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행은 크게 놀랐다. 일행들 가족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집 사람도 간신히 큰 딸과 전화를 통화했다. 내가 짠 이번 일정과 코스가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다행이었다.

나는 미국 어느 철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올랐다. “인생은 태어남(Birth)에서 죽음(Death)까지다. 그런데 B(Birth)와 D(Death)사이에는 C(Choice 선택)가 있다”고 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행, 그 대부분이 선택에 달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말 역세계 재수 좋은 여행이었다.

매니페스토 평가결과 '충남도 우수' 차지

- 충남도 「개별구성」, 「주민소통」,
「웹소통」 등에서 SA등급

지난 3월 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 대표 강지원)에서 민선5기 전국 광역자치단체 장, 시·도 교육감 등의 공약실천계획서 공개 및 내용 평가에서 충청남도가 최우수인 SA등급 (평가등급 : SA, A, B, C, D)을 받았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약속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거나 무시되지 않도록 공약실천계획서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부터 감시를 철저히 한다는 의미에서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다.

공약실천계획서 부문별 평가항목으로는 ①종합성 ②개별구성 ③주민소통 ④웹소통 ⑤공약 일치도 등이며, 총점이 75점을 넘은 우수 자치단체로 충청남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를 선정 발표하였다.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부문별 평가 결과 '개별구성' 부문, '주민소통' 부문, '웹소통' 부문 등에서 최우수인 SA등급을 받았다.

위와 같이 여러 부문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충청남도는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이 확립되는 과정도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였

으며 공약실천계획서로 구체화되면서 좋은 평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포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4월 첫 삽

- 신도시에서 예산수덕사IC를 연결하는 8.4km에 1,230억원투자

충남도는 내포 신도시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예산수덕사IC까지 연결하는 추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편입용지 보상을 3월중에 착수하여 오는 2013년 6월 개통을 목표로 4월 첫 삽을 뜰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진입도로 8.4km(4차로)개설에는 3개년간 총 1,23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도로가 개통되면 道內 전 지역에서 신도시까지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예산수덕사IC에서 신도시까지 현재의 일반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운행거리가 16.7km에서 8.4km로 8.3km가 단축되어 내포신도시 접근성이 향상됨은 물론, 주변 예산일반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2년 말 이전하게 되는 충남도청사는 지난해까지 7층 골조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부지조성, 하수처리시설, 자동집하시설 등 기반시설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추진입도로 개
설공사까지 착공됨에 따라 도청이전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내포신도시의 토지분양 및 아파
트분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

충남,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일제고지 · 고시 실시

- 3월부터 7월 29일까지 건물소
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충남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등을
위해 현행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키
로 하고, 도민 개개인에 대하여 3월부터 7월 29
일까지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 고시」를 실시
하여 이를 새주소로 확정하고 2012.1.1부터 전
면사용하기로 밝혔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
기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100여년간 사용해 왔
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
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1번지 옆에 2번지
가 아닌 60-23번지가 있거나, 하나의 지번 내
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 많은 건물이 하나의
주소를 사용하는 등 위치찾기가 어려웠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
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
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
로 보편화된 주소로서, 본격 도입될 경우, 주소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우리 道를 찾는

연 60만여명의 방문 외국인들이 길 찾기가 편
리해지고, 경찰 · 소방 등 응급구조기관의 신속
한 현장 대응력이 제고되며, 물류비 등 사회경
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도민생활의 안
전과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는 그 동안 약 311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로명주소체계의 완벽한 도입을 위하여 천안
시 등 16개 시 · 군 8,630km² 쏘 지역에 도로명
주소 DB와 전자지도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2,715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도로명을 부
여하고, 23천개의 도로명판과 430천여동의 건
물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 충남도에서는 3월부터 6월말까지 종
전의 주소(지번)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 주소,
도로명 부여사유, 고지사항의 정정 및 도로명의
변경절차가 기재된 고지문을 직접 방문하여 전
달할 계획이며,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
여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사
용하게 되고, 이에 따른 도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
행 사용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
착을 위하여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로
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
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 (<http://www.ju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 폰으로 충남관광 정보를 한눈에...

- 충남도, QR코드 활용, 모바일
웹 서비스 시범 실시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만날 수 있다!!

충남도도는 2월 23일부터 충남의 주요 관광정보를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QR코드를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 주소는 <mtour.chungnam.net>이다.

이번에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웹은 충남의 관광지, 축제/체험, 관광코스, City 투어, 인삼엑스포 등 크게 다섯 가지의 큰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관광코스 메뉴를 선택하면 백제문화권 등 6개 권역별 관광코스를, City 투어코스를 클릭하면 천안 등 7개 시·군의 투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삼엑스포 메뉴에서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 금산군 금산읍 신대리(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에서 “생명의 뿌리, 인삼”을 주제로 열리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에 대한 소식을 미리 접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오픈한 모바일 웹 서비스가 충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모바일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 『순환과 공생의 지역 만들기』 펴내



충남발전연구원 박진도 원장이 최근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농촌지역의 내발적 발전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을 발간했다.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내재적 발전, 주민자치, 그리고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를 위한 농촌주민의 주체적 노력들 가운데 대표적 사례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우리 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기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저자는 농업농촌문제의 해결은 문제의 당사자인 농촌주민과 농민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 역량만큼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농업농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세상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 세상을 바꿀 주체 역량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묻

고 있다.

저자인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국제 경쟁력만이 살 길이라는 중앙정부의 경쟁력 지상주의로는 우리 농촌과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위기를 심화시킬 따름”이라고 비판하면서 “경쟁력보다는 ‘순환과 공생’이라는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리더들의 헌신과 맘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농촌의 희망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공공 디자인을 통한 충남의 경쟁력 키울 터

-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개설
2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충남 공공디자인의 컨설팅 및 자문 등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충남 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센터장 권영현)’가 개설 2주년을 맞았다.

이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이하 ‘공공디자인센터’)는 2월 23일 건양대학교 취업매직센터에서 충남도 김종민 정무부지사, 충발연 박진도 원장, 건양대 신숙원 부총장, 그리고 학계전문가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공감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공공디자인센터는 지난 2년간 천안시 공공벽화 디자인, 논산시 청사마당 공원화 계획 및 청사 상징탑 디자인, 계룡시 다목적체육관 색채디



자인 등 서산시를 제외한 15개 시·군 총 87건의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수행했다.

또한, 공공디자인 담당 공무원 및 운영위원 등과 함께 선진지 견학, 세미나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충남의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공공디자인센터장은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지역의 인식 확산과 실천력은 미흡하다.”면서 “각 지자체장 면담을 통한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충남의 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공공디자인 인식 확산을 위한 유명 강사 초청 특강 등을 통해 충남의 공공디자인 활성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를 ‘공공디자인 도약의 해’로 정하고 ‘2011 유니버설디자인 공모사업’에 7억8천만원을, ‘2011 Sign 한마당’과 ‘제3회 공공디자인공모전’ 등에 9천만원을 투입하며, 청양대학에서 제4회 공공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충남의 브랜드와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도청이전에 따른 ‘행복한 변화, 새

로운 얼굴'인 충남도의 CI를 교체하기 위해 디자인연구용역을 오는 7월 착수하여 내년 4월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및 기념심포지엄 개최

-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순환시스템 구축할 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송두범)가 2월 15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로 설치된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와 연구,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한 순환형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앞으로 센터에서는 충남형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발굴 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컨설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과 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기업 선정 작업과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총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소식에서 송두범 센터장(충발연 선임연구위원)은 "사실상 사회적경제라는 의미가 생소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확산을 도모함은 물론, 특히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성공적 지원과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역순환형 공생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기념세미나 주제발표에 나선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김성기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발전은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 구축과 해체되어가는 지역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씨즈 이은애 혁신지원사업단장은 "충남의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 사회적경제TF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구축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나, 권역별 격차 심화와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에 따른 활력 저하 및 발전기반 취약 등은 위협요인"이라면서 "충남형사회적기업의 전략 분야 발굴과 함께 유형별 지원 방안을 시스템화하는 한편,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한 정부-기관-기업-도민 등의 연계 사업 활성화와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념 심포지엄에는 충남대 경제학과 류동민 교수의 진행으로 권희태 충남도 경제통상실장, 유정규 지역재단 운영이사, 김제선 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김성훈 민들레생협 상무이사, 박찬무 즐거운 밥상(사) 대표 등이 참석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충발연,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

- 제1회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주제로 스타트, 분과별 총6회 실시

2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은 “민선5기 충남 농정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워크숍”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첫 회로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인사말에서 박진도 원장은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농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도·시군·시민사회단체·농어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윤병선 교수는,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 소득의 감소 등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농업과 농민의 현실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우리의 농업·농촌이 편입되어 있는 세계 농식품체계와 산업화된 농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먹거리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원광대 김홍주 교수는 학교급식 사안에서의 향후 실천과제는 지역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급식 조례의 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민주적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통한 물류나 지역농업 차원에서의 공적 역할을 제기하였다. 또 더 나아가 공공급식의 영역에서 공공성, 지역성, 복지성의 원칙하에 조달체계의 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충발연 허남혁 책임연구원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면서 로컬푸드 수단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들을 시행해볼 것을 제안하고, 지역별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형성의 지원,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공공급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김용필 충남도의원은 수도권 집중적인 농산물 유통문제를 지적하며,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순환 농식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거점유통센터가 필요하며, 지역농협과 지

자체가 지역 생산자조직의 멘토 역할을 맡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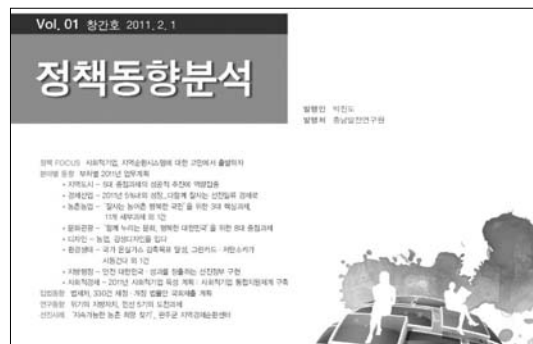
한편, 충남발전연구원은 이 분과별 농정 워크숍을 6회에 걸쳐 연속 시행한 후 농정 대토론회를 4월 26일 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발전연구, 도·시군 정책 지원을 위한 '정책 동향분석' 창간

충남발전연구원(원장 박진도)은 정책결정자나 관계 전문가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정책 동향분석'을 매월 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연 박진도 원장은 “수많은 정책 정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결정에 있어 이들 정보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동향분석'을 만들게 됐다.”며 발행취지를 설명했다.

'정책동향분석'이 제공되는 정보는 연구원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산업경제, 지역도시, 문화관광, 환경생태 등 분야별 정책동향과 최근의 입법동향, 연구동향, 선진사례, 그리고 '정책 FOCUS' 등 5가지이며, 온라인(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과 오프라인(발행물)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정책 FOCUS'를 통해서도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단순한 정책동향안 내 수준을 넘어설 예정이다.

2010년도 상생협력·갈등관리 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전년도 12월 29일(수)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포럼회원, 전문가, 충남도 및 시·군 갈등관리업무 관계관 등 80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의 갈등·분쟁현안 동향과 해결전망을 모색하고, 향후 효율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충남도의 주요 갈등현안과 관련하여 최한규, 전오진, 이준건 박사 및 신기원 교수의 발제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법찾기를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어서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포럼운영 성과보고 및 김종문 충남도의원, 이주영 이임 상임공동대표 외 11명에 대하여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포럼 제3기 출범에 즈음하여 신임 상임고문 박진도 원장(충남발전연구원)을, 신임 상임공동대표 이은호 교수, 공동대표 언론계(김승한 충청투데이 논설실장), 산업계(정지연 테크노세미캡 대표), NGO계(정낙규 예산 지역개발위원장), 여성계(정준이 연기여성협의 회장)를, 그리고 상임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를 각각 선출하여 포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충청남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2010. 11. 10) 제정으로 향후 포럼의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2010년도 RHRD사업 최종보고회 및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

육과학기술부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2010년도 RHRD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에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국제 휴양관광도시형 글로벌 사무·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3D 입체영상 기술인력 양성과정',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민·군 겸용기술 특화 전문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와 함께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토론에서는 지역의 현안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또한 충청남도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적 대안도 다수 제안되었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진행된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에서는 경상남도, 제주도 등 지역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 충청남도 시·군 관계관들의 실무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일자리 창출 연계방안 워크숍을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유기적으로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원고모집

열린충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린충남은 충남에 관한 자유소재(정책제언, 충남여행) 등

참신한 내용과 정보를 「열린마당」에 소개합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www.cdi.re.kr

| 원고작성 | A4용지 3-4매, 휴면명조, 글자크기 11point, 줄간격 160%(사진포함)

| 보내실곳 | 충남 공주시 금흥동 101 충남발전연구원 기획조정연구실

전화 (041)840-1123 팩스 (041)840-1129 E-mail : cdipr@cdi.re.kr